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방어기제와의 관계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상표

2000년 8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방어기제와의 관계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상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방어기제와의 관계

홍 상 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방어기제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 척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5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어머니 각각 5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29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다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별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는 덜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방어기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은 대부분 맏아들 또는 맏딸로서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결론적으로 부모의 관심의 정도가 의사소통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적응 또는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그 자녀는 성숙 수준의 방어기체인 승화, 이타주의, 억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인 것은 자아도취적 수준인 왜곡 방어기체는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신경증적 방어 수준(전치, 반동형성, 합리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모든 의사소통 변인별로 투사, 행동화, 전치, 합리화 등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는 남자 아동들이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여자 아동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성숙 수준의 방어기체인 승화, 억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결국, 여자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서는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환경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춘기와 관련하여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별 수준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분석에서 정적관계를 보이는 변인과 방어기제는 공감적이해 수준과 이타주의, 구체성 수준과 부정 및 승화, 직면 수준과 억제 등이고, 부적 관계를 보이는 변인과 방어기제는 존중 수준과 이타주의, 직면 수준과 투사, 자아개방 수준과 합리화, 즉시성 수준과 합리화 등이다.

결국, 의사소통의 변인별 수준과 성숙 수준의 방어기제가 많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심화촉진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홀로 설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 단위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부모들이 연수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문제 | 3 |
| 3. 연구의 제한점 | 4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의사소통의 개념 | 5 |
| 2. 촉진적 의사소통 | 6 |
| 3.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 | 8 |
| 4. 방어기제 수준과 척도 | 14 |
| 5. 촉진적 의사소통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 19 |
| III. 연구 방법 | 22 |
| 1. 연구 대상 | 22 |
| 2. 측정 도구 | 22 |
| 3. 자료 처리 | 26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8 |
| V. 요약·결론 및 제언 | 53 |
| 1. 요약 | 53 |
| 2. 결론 | 59 |
| 3. 제언 | 62 |
| 참고문헌 | 63 |
| Abstract | 68 |
| 부 록 | 71 |

표 목 차

| | |
|--|----|
| <표II-1> Vaillant의 자아방어기제 성숙단계 | 17 |
| <표III-1> 어머니 자녀의 배경 변인 | 22 |
| <표III-2>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변인별 문항 번호 | 23 |
| <표III-3> 촉진적 의사소통 설문지 문항별 채점 기준표 | 24 |
| <표III-4> 방어기제 검사 설문지 척도별 문항 번호 | 25 |
| <표III-5> 방어기제 4 가지 수준별 내용 | 26 |
| <표IV-1>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투사척도의 평균 | 27 |
| <표IV-2>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투사척도의 변량분석 | 27 |
| <표IV-3>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정척도의 평균 | 29 |
| <표IV-4>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정척도의 변량분석 | 30 |
| <표IV-5>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왜곡척도의 평균 | 31 |
| <표IV-6>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왜곡척도의 변량분석 | 31 |
| <표IV-7>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동일시척도의 평균 | 33 |
| <표IV-8>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동일시척도의 변량분석 | 34 |
| <표IV-9>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수동공격척도의 평균 | 36 |
| <표IV-10>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수동공격척도의 변량분석 ... | 36 |
| <표IV-11>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화척도의 평균 | 38 |
| <표IV-12>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화척도의 변량분석 | 38 |
| <표IV-13>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반동형성척도의 평균 | 40 |
| <표IV-14>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반동형성척도의 변량분석 ... | 40 |
| <표IV-15>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전치척도의 평균 | 42 |
| <표IV-16>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전치척도의 변량분석 | 43 |
| <표IV-17>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합리화척도의 평균 | 44 |
| <표IV-18>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합리화척도의 변량분석 | 45 |
| <표IV-19>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승화척도의 평균 | 46 |
| <표IV-20>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승화척도의 변량분석 | 46 |
| <표IV-21>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타주의척도의 평균 | 48 |
| <표IV-22>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타주의척도의 변량분석 ... | 48 |
| <표IV-23>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억제척도의 평균 | 49 |
| <표IV-24> 연령,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억제척도의 변량분석 | 50 |
| <표IV-25> 어머니의 의사소통 변인과 자녀의 방어기제 척도와의 상관관계 | 5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는 날마다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고, 당면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문제 사태에 직면하여 갈등이나 욕구불만이 생길 때 두 가지 행동 양식을 취하게 된다. 하나는 직접적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 객관적,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에 따라 목표 달성 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의 욕구 좌절이나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양식은 방어적 비합리적 행동으로 문제의 근원적인 접근은 시도하지 않고 방어적, 도피적, 공격적 방법으로 적응하여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최순영 외, 1995).

우리의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아동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수 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들이 합리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적응할 때는 문제 행동 내지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비합리적, 공격적으로 적응한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문제 행동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공간, 동일한 자극 속에서도 개개인이 반응하는 양식은 모두 다른데 그런 행동 양식을 방어기제라고 말하고 있다. 자아방어 기제는 신경증적 증상 형성의 결정적 요인으로 Freud에 의해 주목된 이래 개인의 적응 상태에서나 부적응 상태에서의 갈등해결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정신 병리의 기저에 있는 고통스런 정서나 사고를 방어해 줌으로써 증상 형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치유와 적응 과정을 유도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박영숙, 1998).

그러면 아동의 고유한 적응 양식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초기 경험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아동의 적응 양식과 사회성 발달의 기본적 바탕을 형성하게 하는 곳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다(김성태, 2000).

김유숙(2000)은 가족의 교육적 기능을 첫째, 새 세대를 출생 시켜 언어의 기초 및 애정과 정서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 성립의 기초를 형성시키며, 둘째,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을 습득시키고 다양한 가치를 취득하게 하는 사회화를 촉진하는 장이 되며, 셋째, 부모, 형제, 자매라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통해 일상 언어, 기호적 생활 습관, 행동 양식, 사회성과 경제 관념, 선악 개념, 이성적 태도, 이해심 등을 배우는 문화의 장이고, 넷째, 기본적 인격의 구조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인격 형성의 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격 형성의 중요한 장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호 연결되어 가정생활을 영위해 간다. 특히 가족내의 인간관계 중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 인간관계 변인이 건전한 인성의 발달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적응, 행동의 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함을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Carkhuff & Berenson, 1967 ; Truax & Carkhuff, 1967 ; Carkhuff, 1969 ; Truax & Mitchell, 1971).

Rogers(1961)는 특히 어머니-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 보다도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조력적 인간관계 경험을 갖는가 하는 것은 자녀의 적응 수준 또는 갈등 해결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가정 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을 변인을 중심으로 조력자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피조력자의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많은 연

구들이 있었다(Trusx & Carkhuff, 1964; Anderson Douds & Carkhuff, 1967 ; Collingwood, Renz & Carkhuff, 1969 ; Shapiro, 1969 ; Truaz, Wittmer & Wargo, 1971).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을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외에 Carkhuff가 제안한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 7개 변인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성을 발달 시키며 구성원간의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갈등해결 방식, 적용 방식의 특징을 밝히고, 가정에서 효과적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어머니의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어머니의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자녀의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 척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을 제주 지역 5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그 어머니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해석 하거나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직접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범위 내에서 설문지에 의존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의사 소통의 개념과 수준, 방어기제의 개념과 하위 요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촉진적 의사소통과 방어기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은 공동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Communis가 그 어원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이나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박연호, 1987).

의사소통은 관점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달리 하고 있지만, 사람들 간의 태도, 감정,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sndall & Knoll, 1980).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가족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 반향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 수행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6).

Schumm(1979)은 의사소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활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 시키고, 새로운 사회 성원을 교육 시키며, 즐거움을 주고, 서로 설득하고 통제해서 합의를 얻는 등의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내적 긴장을 완화 시키며, 경험의 공유에 의한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에 의한 안정감을 획득하며,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 접촉에 의한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 필요한 정보의 입수, 기분전환 등을 의미하고 이런 것이 수용적인 태도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Adamas(1980)는 의사소통의 주요 두 가지를 ‘말해지는 내용과 말해지는 방

법'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말해지는 내용보다는 말해지는 방법에 더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여 가족 의사소통에 있어서 메시지 자체보다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순옥(1990)은 의사소통이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홍기선(1984)은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 즉 정보의 전달 현상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것과 몸짓이나 시간, 공간 등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의사소통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 교류,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 표현을 촉진 시키거나 지체 시키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된다. 즉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서

“의사소통이란 감정,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전달 과정을 통하여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한다.

2. 촉진적 의사소통

촉진적 의사소통은 조력 과정에서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 해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잠재 능력까지도 성장 발달 시키려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Reisman(1971)은 이해, 존중, 조력적 욕구를 표현하는 인간적 상호작용을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적 의사소통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문제 해결에 더 직접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arkhuff(1969)는 치료적 과정은 곧 의사소통 과정이고 이 의사소통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이 자체가 조력 과정의 수단이며 목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Stewart(1976)에 의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어떤 객체가 아니라 고유한 인간적인 존재로 이해 존중되어 인성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보았다면,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을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조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들을 검토하여 보면 치료적 의사소통은 촉진적 의사소통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적 의사소통은 개인의 의사소통, 부적응 행동의 치료,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조력에 대한 소극적 관점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Rogers는 핵심적 인간관계 변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의 태도를 조력자가 피조력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이를 피조력자가 지각하는 것이 피조력자의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Carkhuff, Truax와 Berenson(1967)은 기존의 상담 이론과 기법들을 분석 검토하여 Rogers의 세 가지 핵심 변인 이외에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을 조력 과정에서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인간 관계 변인으로 제시하여 촉진적 인간관계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 하였다. 또한, Carkhuff(1969)는 이 7개의 촉진적 인간관계 변인을 기초로 하여 촉진적 의사소통 훈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들은 의사소통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가정을 구성해 간다.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특히 부모 -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정혜영, 1987).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목적을 향해 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 자녀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은 가정 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고 매일의 생활에서 가족간의 감정을 유지시키며 가족의 상호활동을 조장시킴은 물론 서로의 정보 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김성태, 1985).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으로 특정 지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부모 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Gordon, 1974).

결국, 부모와 자녀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하에 서로 교류함으로써, 세대간의 차이를 좁혀 주며 몰이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시키고, 좀 더 의미있는 부모 - 자녀 관계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조력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보다 긍정적 특성의 발달, 특히 자아실현의 성취를 촉진 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3.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

촉진적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첫째 변인은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이다.

Rogers(1961)는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private world)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 때 상담자는 어디까지나 마치 ...인 것처럼(as if)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분노, 두려움, 혼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면서도 상담자 자신의 분노, 두려움, 혼돈을 내담자의 그것에 관련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내담자의 세계가 상담자에게 명료해지고, 상담자가 이를 자유롭게 탐색하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의사소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상담자 자신의 개념틀을 개입 시키지 않고 내담자의 내적준거체제(internal frame of reference)에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왜곡없이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내담자를 이해려고 하지만 상호간의 인간적 경계를 유지하려고 한다(patterson, 197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표면적 감정, 사고 뿐만 아니라 명백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표현하여 내담자의 심층적인 자기탐색(self exploration)을 촉진하게 된다(Carkhuff, 1969).

Patterson(1974)은 공감적 이해는 최소한 다음 세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고 자신의 지각과 감정을 상담자에게 표현하면 상담자는 이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 전달하는 것을 내담자의 내적준거체제를 가지고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이해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과 지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담자와 더불어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적 심리를 자유롭게 표현 탐색하여 진정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Carkhuff(1969)는 공감적 이해가 모든 조력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Fiedler(1950)는 이상적인 치료 관계의 핵심이라고 주장 한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두 번째 변인은 무조건적 존중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이다.

Rogers(1961)는 무조건적 존중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따뜻한 배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이때 배려는 비소유적(nonpossessive)이고 상담자의 어떤 특성을 행동 조건으로 하지 않고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내담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수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조건적 존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건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장, 발달할 필요가 있는 귀중한 하나의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무조건적 존중의 뿌리를 두고 있다(박성수, 1986).

Rogers(1961)에 의하면, Standaal이 무조건적 존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상담자의 존중적인 태도가 내담자의 어떤 특정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라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조건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수용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자세로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을 수용하고 이를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한다. 상담자가 비평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내담자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Patterson,1974).

Carkhuff(1969)는 존중은 조력자가 피조력자의 인간적 가치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 번째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은 순수성(genuineness)이다.

Rogers(1961)는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일치될 필요가 있는데, 즉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가면을 쓰거나 역할놀이를 하거나 가식을 부리는 허구적인 태도를 벗어나 진정한 자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담자는 진실되고 일치성을 보이며 순수성이 결여 되면 조력과정에서 의미 있는 학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순수성을 상담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력과정에서 상담자의 내면적 경험, 그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모두 일치되어야 내담자의 긍정적 인성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하여 어떤 가면을 쓰거나 역할 놀이를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고 진실된 인간적 관심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상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일치된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파괴적, 건설적으로 표현하여 내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즉 상담 관계를 증진하고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이나 경험을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여야 되는가를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박성수, 1986).

특히 Carkhuff와 Berenson(1967)은 상담자가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파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여 이것을 촉진적 순수성(facilitative genuineness)이라고 부르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네번째 변인은 구체성(concreteness)이다

Carkhuff(1969)는 구체성은 조력 과정에서 피조력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감정과 경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논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질문으로부터 반사(reflection)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관련된 문제 영역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적인 역할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Carkhuff와 Berenson(1967)은 구체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고 지적한다.

- 첫째, 상담자의 반응을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에 보다 접근 시킨다.
- 둘째,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 셋째, 내담자로 하여금 특정 문제 영역에 주목하게 한다.

Egan(1986)은 조력자의 구체성이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건설적인 행동단계(constructive action phase)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피조력자의 구체성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성은 문제 영역과 관련된 감정, 행동, 경험을 분명하게 한다. 조력자는 구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피조력자의 구체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조력자는 피조력자의 장황한 설명을 가급적 억제하고 구체적인 반응을 짧고 빈번하게 함으로써 피조력자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 이때 조력자는 주로 ‘어떻게’, ‘무엇을’의 질문을 함으로써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체성은 개인의 감정, 경험을 논의할 때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 대신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결과 감정과 경험을 보다 명료하게 변별함으로써 피조력자의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다섯째 변인은 직면(confrontation)이다.

Carkhuff(1969)는 직면을 첫째, 내담자의 현실적 자아(real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 self)와의 불일치이고, 둘째,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과의 불일치이며, 셋째, 상담자의 내담자 경험에 대한 지각과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의 불일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불일치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 태도, 행동상의 문제점, 불일치점을 지각하여 이를 명료하게 지적함으로써 내담자의 새로운 통찰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면은 내담자에게 도전감을 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일종의 발전된 수준의 공감적 이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면은 조력자로 하여금 말과 행동, 사고와 감정,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를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자기와 다른 사람 및 세계에 대한 대안적이고 객관적이며 덜 왜곡된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Egan, 1986).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직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태도로 삶에 부딪혀 나가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Carkhuff, 1969). 그런데 직면은 피조력자의 부정적 측면이나 약

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피조력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 자질 또는 잠재적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시켜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 시키려 한다(Patterson, 1974).

여섯 번째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은 자아개방(self - disclosure)이다.

Patterson(1974)은 자아개방은 상담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arkhuff(1969)는 자아개방은 순수성의 한 측면이고 조력자와 피조력자가 개인적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이 진실된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성은 감정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아개방은 정보나 사실의 공개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자아개방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순수성의 경우와 미찬가지로 촉진적인 혹은 치료적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 되어야 한다(Patterson, 1974).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자에 의한 일방적인 자아개방은 내담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마지막 일곱째 변인은 즉시성(immediacy)이다.

즉시성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7개의 인간관계 변인 중에서 조력자와 피조력자의 상호작용에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gan(1986)은 즉시성은 '지금 - 여기에(here and now)'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즉시성의 본질을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arkhuff(1969)에 의하면 유능한 상담자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즉시성은 조력과정에서 피조력자가 조력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할 때, 조력자는 이를 민감하게 지각하여 직접적으로 이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방어기제 수준과 척도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상호 작용을 할 때, 자신의 고유 행동 방식을 아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특유한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행동 방식에 대한 지식은 한 개인이 새로운 상황속에 내던져져 그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야 할 때, 스스로 대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또, 자신의 문제대처능력을 파악하는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특유의 대처 방식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가 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논제가 된다.

우선 적응 방식이라는 개념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긴장이나 갈등에서 오는 해로운 결과들을 줄이기 위해 개인마다 고유하게 취하게 되는 일관적인 정신내적 과정을 말한다(제석봉,1989). 이러한 과정을 대처기제 또는 방어기제라고도 하며,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처리에 있어 비교적 일관적이고 특징적인 정신내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Moos & Billings, 1982 ; 제석봉, 1989).

Freud이후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가 정신병리를 이해하는데 중요시 되어 왔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방어기제에 대한 명칭이나 종류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일치된 견해를 찾기 힘들다.

학자에 따라 방어기제(Freud, 1949 ; Spielberger, 1977 ; 김성태, 1978), 심리기제(Erikson, 1950 ; 정양은, 1976), 정신 기제(Noyes, 1968 ; 이현주, 1977), 행동기제(Hilgard, 1949 ; 장병립, 1977), 적응기제(Caroll, 1962 ; 민영순, 1984) 등의 유사한 명칭으로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방어기제의 종류에 대하여도 Noyes(1968)는 13개, Cameron(1947)은 14개, 한동세(1969)는 13개를 열거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기제들을 방어, 도피, 공격기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방어기제에 보상, 합리화, 동일시, 투사, 승화를 묶고 도피기제에 고립, 퇴행, 억압, 백일몽을 포함시키고 공격기제를 독립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민영순, 1984).

방어기제가 정신분석학의 이론만 가지고는 순수한 개념적인 문제인지 혹은 인간의 신경생리학에 어떤 바탕을 둔 것인지 확실하지 못하다. 정신기제를 순수한 심리학적 구조(Psychological Construct)로 생각한 Freeman(1958)과는 달리 Freud는 일찍이 방어기제와 해부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Freud는 방어기제를 이드(Id)충동의 공개적 표현과 이에 대립되는 초자아(Super ego)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1900년대 이전과 1900~1923년, 1923~1939년 3단계별로 Freud의 연구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가운데 방어기제가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논의 되었다. 이 논의에서의 공헌은 자아방어 분석에서 자아를 방어의 병적 사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건설적으로 장려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었다. 이 시사성을 뒷받침해준 Noyes(1968)는 정신기제는 병적인 것이 아니고 생물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현상이며 환자의 치료 목적은 정신기제를 제거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인간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생물체는 자기방어기제(Self Defense Mechanism)를 가지고 있어 자기 보존 욕구를 실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는 상당할 정도로 현실을 왜곡함은 물론 자기기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어기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인간의 성장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에게서 완전한 적응과 부적응은 실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정신기능을 완전히 갖춘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적응과 부적응의 양극의 연속선상의 어느 위치에 있으며 방어기제도 한 연속차원(Continuum)을 이루면서 연합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기제들이 좋으나 나쁘냐를 분류해 보려는 것보다 기제를 알맞게 사용하는 정도를 조절하여 방어기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이상우, 1983).

적응기제 또는 방어기제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Freud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신경정신 질환을 형성하는 임상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어 왔으며 자기기만(Self-deception)과 현실 왜곡(reality distortion)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최근 자아 발달(ego development)이론이 등장하면서 병리적인 면보다는 적응적인 면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어기제가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한 Lazarus(1979) 주장과 한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성격의 한 부분이 된다는 Brenner (1981)의 주장은 더 이상 방어기제가 특별한 대상이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자아발달(ego development)이론은 Loevinger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Freudian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고전적 정신 분석의 superego가 자아발달 이론의 eg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Caver&Scheier, 1988). 이와 같이 ego의 중요성 및 적응능력을 부각시키고, 도덕성 발달과 충동 통제, 그리고 행동의 내재화에서 ego의 역할에 초점을 두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자아발달 이론의 특징이다. 또한 이 이론은 ego기능의 본질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id는 갖지 않고 ego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기제가 id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조작하는 것이라면, 자아발달이론에서의 방어기제는 ego가 내재적인 갈등에 대처하고 상충되는 요구에 만족스런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이라 이해된다.

Loevinger의 자아발달(ego development) 이론이 등장하면서 대처 및 방어기제의 사용이 자아발달단계에서 제시된 성숙과 일치하는지 밝히려는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Ihilevich & Gleser, 1986).

Sigal(1983)의 연구에서는 자아가 발달될수록 억제, 승화 같은 보다 적응적이고 자아확대적 방어기제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밝혔다. 또 Picano(1984) 역시 자아가 발달하여 자신의 발달과업을 이룬 학생일수록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지성화, 능동적 대처, 객관화, 논리적 분석과 같은 효율적 적응방식을 취하는 반면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억압, 천치와 같은 미성숙하고 불

안정한 방어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지송희(1995)역시 Picano와 비슷하게 현실 만족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연구하였는데 만족스런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불만족스런 생활을 하는 학생들보다 통제, 예견, 승화와 같은 자아확대적이고 성숙한 방어기제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같이 방어기제를 적응양식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Vaillant(1971)의 주장에 기인한다. Vaillant(1971)는 방어기제가 4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방어기제는 상호 배타적인 정의(definition)를 가지고 있으며, 병리적 적응 뿐 아니라 대처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방어기제는 이론적으로 발달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정신병리적 장애를 측정하는 방법과 같이 정상인들의 역동적 심리상태를 설명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그의 주장은 병리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방어기제를 완전히 배제한 채 건강한 개인의 적응 및 대처를 위한 수단으로서 방어기제를 설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응양식으로서 자아방어기제의 긍정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것이다. 또, 그는 임상학적 측면에서 방어기제를 성숙수준에 따라 <표 II-1>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II-1 > **Vaillant의 자아방어기제 성숙단계**

| I : 자아도취적 | II : 미성숙 | III : 신경증적 | IV : 성숙 |
|----------------------------------|-------------------------------|--------------------|----------------|
| 망상적투사 (Delusional projection) | 투사 | 지성화 | 이타주의 |
| 부정 | 분열증적 환상 (schizoid fantasy) | 억압 (Repression) | 유머 |
| 왜곡 | 건강염려증 수동공격 행동화 | 전치 반동형성 해리 | 억제 예견 승화 |

출처 :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by G. E. Vaillant, 1971,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p.111

성숙단계별로 구분된 방어기제들을 임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계층(hierarchy)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인에게는 발달단계에 따라 수준의 순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계층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즉, 하위 수준의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개인의 미숙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히려 각 수준에 포함된 방어기제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적 특징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적용 도구로 이해된다.

자아 방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이화방어기제 검사가 있다. 이화방어기제 검사에서 분류한 자아방어기제의 하위척도들은 Vaillant(1971)의 방어기제와 내용이 비슷하고, 각 성숙도에 따라 나뉜 방어기제의 내용 역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화방어기제 검사는 한국인 특유의 적용방식으로 보여지는 허세(show-off)와 회피(evasion)척도를 포함하여 20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이근후 외, 1990). 우리나라의 많은 속담 가운데 방어기제를 포함하는 속담들을 이용하여 한국인 특유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를 한 박경화(1991)는 요인 분석을 통해 4가지 공통된 특성을 갖는 방어기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적응행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 중심으로 분류된 것으로 이를 적응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추출된 4가지 요인은 행동화, 자아확대적, 자아은폐적, 현실직면회피 방식이다. 이를 이화자아방어검사(EDMT)에서는 다시 불안정한 예민화, 자아확대적, 자아부정적, 행동억제적 방식으로 명명하였다(김재은 외, 1991).

본 연구에서는 Vaillant(1971)가 4단계로 구분한 방어기제 성숙 단계를 채택하였으며, 방어기제 척도도 이화방어기제 20개 척도 중 12개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5. 촉진적 의사소통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개인이 고유하게 취하게 되는 일관적인 정신 내적 과정 또는 적응 방식인 방어기제는 중요한 인성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촉진적 의사소통과 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여러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Rogers(1959)는 촉진적 의사소통이 인성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결여가 원인이 되어 인성의 왜곡 및 부적응이 초래되는 과정과, 그 반대로 촉진적 의사소통이 심리적 적응을 증진 시키는 과정과 기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격적인 부적응의 원인을 인간관계 특히 부모-자녀와 같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그 행동을 유발시킨 자녀의 내적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존중을 철회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욕구를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밖에 없게 한 것이 심리적 부적응 즉, 성격적 부적응을 유발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박성수(1979)는 가족의 왜곡된 인간관계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으로 반영되고 의사소통의 장애는 올바른 인간 관계 정립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의 의사소통 장애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Bledsoe와 Wiggins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이해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학업포부를 보이고 있다(마정건, 1988).

Barnett는 4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적 이해 능력과 아동의 공감적 이해 능력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특

히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능력과 아동의 공감적 이해 능력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마정건, 1988).

Burke와 Weir(1976, 1977)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차적으로 그들의 동료로부터 조력을 구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순으로 조력을 구한다고 하면서 조력자로서의 부모의 반응, 행동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행동 및 정서적 안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의 반응행동을 지배-부정, 구체적 지원, 주의전환, 객관적 분석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 지원반응을 많이 보이는 부모의 청소년들은 다른 반응을 많이 보이는 부모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자진해서 공개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 정서적 안정과 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Beakel(1971)도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이중 의미의 불일치된 의사소통은 아동에게 갈등과 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연숙(1990)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상호간의 대화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의 원만한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Glauser(1979)는 의사소통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이상성격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지배적, 통제적인 태도를 보여 자녀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머니-자녀간에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방적 의사소통만이 이루어져 어머니-자녀 관계가 악화된다.

둘째, 어머니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녀의 메시지를 부정한다.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감정과 사고를 대변하려고 한다.

셋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표현이 불일치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흔히 불일치하여 자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마정건, 1988).

지금까지 선행 연구 개관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 - 자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발달 촉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자녀의 적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조건적 존중,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태도, 공감적 이해, 솔직하고 순수한 태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사 전달, 현재에 충실한 자세 등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요청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Carkhuff 등이 제시하는 성장촉진적 인간관계 모형에서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이 어머니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가에 따라서 성격 발달 내지는 적응 방법이 달라지게 됨을 선행 연구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 중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성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Rogers(1951), Carkhuff(1969) 등이 효율적 조력을 위한 인간관계 변인으로 제안한 7개 변인과, 방어기제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내적 갈등이나 외부 자극 조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측정해 보고 일관된 적응 행동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견해 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5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500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요령에 대하여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결과 표집된 사례수는 361명이었다. 이 중 자료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제외 시키고, 290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의 사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자녀 배경 변인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어머니 자녀의 배경 변인

| 구 | 분 | 빈 | 도 | 응답자(%) |
|---------|--------|-----|---|--------|
| 어머니의 연령 | 30대 | 143 | | 49.3 |
| | 40대 이상 | 147 | | 50.7 |
| 어머니의 학력 | 중졸 | 49 | | 16.9 |
| | 고졸 | 200 | | 69.0 |
| | 대졸 이상 | 41 | | 14.1 |
| 어린이 성별 | 남 | 141 | | 48.6 |
| | 여 | 149 | | 51.4 |
| 계 | | 290 | | 100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설문지와 둘째,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척도 설문지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검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1969)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별로 각 7개 문항씩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주군 소재 H초등학교 6학년 71명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현실 감각에 맞지 않아서 무응답의 사례가 많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래서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5개 문항씩 총 35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문항 번호는 <표Ⅲ-2>와 같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 검사지의 신뢰도를 계산한 cronbach' α 의 문항동질성 계수는 .75로 산출되었다.

<표Ⅲ-2>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변인별 문항 번호

| 의사소통 하위변인 | 문항 번호 | 점 수 |
|-----------|-------------------|-------------|
| ① 공감적 이해 | 1, 8, 15, 22, 29 | 1문항 당 5점 만점 |
| ② 존중 | 2, 9, 16, 23, 30 | " |
| ③ 순수성 | 3, 10, 17, 24, 31 | " |
| ④ 구체성 | 4, 11, 18, 25, 32 | " |
| ⑤ 직면 | 5, 12, 19, 26, 33 | " |
| ⑥ 자아개방 | 6, 13, 20, 27, 34 | " |
| ⑦ 즉시성 | 7, 14, 21, 28, 35 | " |

응답에 대한 채점은 각 문항별로 1수준 1점, 2수준 2점, 3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하며, 각 하위 변인별 만점은 25점이 된다.

각 문항별 채점 점수는 <표Ⅲ-3>과 같다.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검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1969)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별로 각 7개 문항씩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제주군 소재 H초등학교 6학년 71명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현실 감각에 맞지 않아서 무응답의 사례가 많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래서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5개 문항씩 총 35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문항 번호는 <표Ⅲ-2>와 같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 검사지의 신뢰도를 계산한 cronbach' α 의 문항 동질성 계수는 .75로 산출되었다.

<표Ⅲ-2>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 변인별 문항 번호

| 의사소통 하위변인 | 문항 번호 | 점 수 |
|-----------|-------------------|-------------|
| ① 공감적 이해 | 1, 8, 15, 22, 29 | 1문항 당 5점 만점 |
| ② 존중 | 2, 9, 16, 23, 30 | " |
| ③ 순수성 | 3, 10, 17, 24, 31 | " |
| ④ 구체성 | 4, 11, 18, 25, 32 | " |
| ⑤ 직면 | 5, 12, 19, 26, 33 | " |
| ⑥ 자아개방 | 6, 13, 20, 27, 34 | " |
| ⑦ 즉시성 | 7, 14, 21, 28, 35 | " |

응답에 대한 채점은 각 문항별로 1수준 1점, 2수준 2점, 3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하며, 각 하위 변인별 만점은 25점이 된다.

각 문항별 채점 점수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촉진적 의사소통 설문지 문항별 채점 기준표

| 문항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 | 5 | 1 | 3 | 2 | 4 | 19 | 4 | 2 | 1 | 3 | 5 |
| 2 | 2 | 4 | 1 | 5 | 3 | 20 | 5 | 1 | 3 | 2 | 4 |
| 3 | 4 | 2 | 1 | 3 | 5 | 21 | 4 | 2 | 1 | 3 | 5 |
| 4 | 5 | 1 | 3 | 2 | 4 | 22 | 5 | 1 | 3 | 2 | 4 |
| 5 | 1 | 4 | 2 | 5 | 3 | 23 | 4 | 2 | 1 | 3 | 5 |
| 6 | 5 | 1 | 3 | 2 | 4 | 24 | 1 | 4 | 2 | 5 | 3 |
| 7 | 1 | 4 | 2 | 5 | 3 | 25 | 4 | 2 | 1 | 3 | 5 |
| 8 | 1 | 4 | 2 | 5 | 3 | 26 | 1 | 4 | 2 | 5 | 3 |
| 9 | 2 | 5 | 1 | 3 | 4 | 27 | 3 | 2 | 5 | 4 | 1 |
| 10 | 1 | 4 | 2 | 5 | 3 | 28 | 3 | 2 | 5 | 4 | 1 |
| 11 | 5 | 1 | 3 | 2 | 4 | 29 | 3 | 2 | 5 | 4 | 1 |
| 12 | 4 | 2 | 1 | 3 | 5 | 30 | 1 | 4 | 2 | 5 | 3 |
| 13 | 4 | 2 | 1 | 3 | 5 | 31 | 5 | 1 | 3 | 2 | 4 |
| 14 | 5 | 1 | 3 | 2 | 4 | 32 | 4 | 2 | 1 | 3 | 5 |
| 15 | 2 | 5 | 1 | 3 | 4 | 33 | 5 | 1 | 3 | 2 | 4 |
| 16 | 3 | 2 | 5 | 4 | 1 | 34 | 4 | 2 | 1 | 3 | 5 |
| 17 | 4 | 2 | 1 | 3 | 5 | 35 | 3 | 2 | 5 | 4 | 1 |
| 18 | 3 | 2 | 5 | 4 | 1 | | | | | | |

7개 하위 변인별 의사소통 수준을 나누는 방법은 Carkhuff(1969)와 마정건(1988)의 분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Ⅲ-2>와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하위 변인별로 각각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평균 2.5 미만을 '비촉진 수준', 평균 2.5 이상 3.5 미만을 '기본 촉진 수준', 3.5 이상을 '심화 촉진 수준'으로 명명하였다.

2) 자녀의 방어기제 수준 검사

자녀의 자아방어기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화방어기제 검사를 사용했다. 이 검사지는 20개 방어기제 척도에 각각 10문항씩 총 200개의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제주군 소재 H초등학교 71명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 답이 곤란하다고 하거나 무응답 빈도가 높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Vaillant(1971)가 구분한 4개의 수준별로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을 최종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된 60 문항으로 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시 검사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α 점수는 .72로 나타났다. 방어기제의 사용 수준과 척도, 그리고 문항 번호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방어기제 검사 설문지의 척도별 문항 번호

| 방어기제사용수준 | 척도 | 문 항 번 호 | 점 수 |
|-----------|------|--------------------|----------------------|
| 1.자아도취적수준 | 투사 | 1, 13, 25, 33, 37 | 1문항 당 5점 씩 75점 만점 |
| | 부정 | 5, 9, 17, 29, 45 | |
| | 왜곡 | 21, 41, 49, 53, 57 | |
| 2.미성숙수준 | 동일시 | 2, 10, 26, 38, 58 | " |
| | 수동공격 | 6, 18, 34, 46, 50 | |
| | 행동화 | 14, 22, 30, 42, 54 | |
| 3.신경증적수준 | 반동형성 | 3, 7, 35, 47, 51 | " |
| | 전치 | 11, 15, 23, 31, 59 | |
| | 합리화 | 19, 27, 39, 43, 55 | |
| 4.성숙수준 | 승화 | 4, 8, 16, 32, 56 | " |
| | 이타주의 | 12, 28, 40, 48, 60 | |
| | 억제 | 20, 24, 36, 44, 52 | |

응답에 대한 채점은 각 문항별로 '전혀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아주 그렇다'-5점으로 하며 각 수준별 만점은 75점이 된다.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Vaillant(1971)가 구분한 방어기제의 4 가지 수준별 내용은 <표Ⅲ-5>와 같고, 이 때의 '수준'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방어기제의 공통된 특징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어 척도 12가지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3>에 제시하였다

<표Ⅲ-5> 방어기제 4 가지 수준별 내용

| 방어기제 사용수준 | 내 용 |
|-------------|---|
| 1. 자아도취적 수준 | · 현실을 변형 시키는 특징을 가지며 투사, 부정, 왜곡을 포함한다. |
| 2. 미성숙수준 | · 대인간의 친밀감을 위협 받았을때나 친밀감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종종 변형 시키는 기제로서 동일시, 수동공격, 행동화, 퇴행, 회피를 포함한다. |
| 3. 신경증적 수준 | · 개인의 감정이나 본능적 표현들을 변형 시키는 기제로서 허세, 반동형성, 전치, 해리, 통제, 합리화, 해리를 포함한다. |
| 4. 성숙 수준 | · 현실, 대인관계, 그리고 개인의 감정 및 양심을 통합 시키는 기제로서 억제, 예견, 승화, 이타주의 유머를 포함한다. |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부호화하였다. SPSS/PC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연령별, 학력별 의사소통 수준을 나누고, 그에 따른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후 다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또,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 관계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투사척도의 사용 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투사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1>과 같고, 다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IV-2>에 나타나 있다.

<표IV-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투사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남아 | 27 | 13.74(3.14) | 72 | 13.70(3.35) | 29 | 13.44(3.13) | 128 | 13.65(3.23) |
| | 여아 | 36 | 14.69(3.14) | 68 | 14.48(2.95) | 37 | 14.24(3.01) | 141 | 14.47(3.00) |
| | 계 | 63 | 14.28(3.15) | 140 | 14.08(3.17) | 66 | 13.89(3.06) | 269 | 14.08(3.13) |
| 존중 | 남아 | 12 | 13.50(3.08) | 69 | 13.85(3.06) | 50 | 13.38(3.46) | 131 | 13.64(3.21) |
| | 여아 | 20 | 13.60(3.58) | 71 | 14.60(2.81) | 56 | 14.69(2.94) | 147 | 14.50(2.97) |
| | 계 | 32 | 13.56(3.35) | 140 | 14.23(2.95) | 106 | 14.07(3.25) | 278 | 14.09(3.11) |
| 순수성 | 남아 | 20 | 13.60(3.39) | 66 | 13.16(3.30) | 44 | 14.43(2.90) | 130 | 13.66(3.21) |
| | 여아 | 25 | 15.34(2.18) | 67 | 14.28(3.21) | 49 | 14.36(2.93) | 44 | 14.43(2.90) |
| | 계 | 46 | 14.58(2.87) | 133 | 13.72(3.29) | 93 | 14.39(2.90) | 272 | 14.10(3.11) |
| 구체성 | 남아 | 39 | 13.25(3.43) | 59 | 13.57(3.33) | 33 | 14.45(2.84) | 131 | 13.70(3.25) |
| | 여아 | 46 | 14.97(2.68) | 57 | 14.49(3.11) | 40 | 14.07(3.10) | 143 | 14.53(2.99) |
| | 계 | 85 | 14.18(3.15) | 116 | 14.02(3.24) | 73 | 14.24(2.97) | 274 | 14.13(3.13) |
| 직면 | 남아 | 20 | 14.50(2.62) | 73 | 13.63(3.19) | 32 | 13.00(3.53) | 125 | 13.60(3.21) |
| | 여아 | 26 | 15.00(3.69) | 69 | 14.65(2.68) | 44 | 13.88(2.97) | 139 | 14.47(2.99) |
| | 계 | 46 | 14.78(3.25) | 142 | 14.12(2.99) | 76 | 13.51(3.23) | 264 | 14.06(3.12) |
| 자아개방 | 남아 | 38 | 14.34(2.84) | 68 | 13.14(2.99) | 24 | 13.79(4.19) | 130 | 13.61(3.22) |
| | 여아 | 41 | 14.48(3.23) | 75 | 14.34(2.84) | 29 | 14.75(3.01) | 145 | 14.46(2.97) |
| | 계 | 79 | 14.41(3.03) | 143 | 13.77(2.96) | 53 | 14.32(3.59) | 275 | 14.06(3.11) |
| 즉시성 | 남아 | 14 | 14.35(2.23) | 69 | 13.39(3.60) | 46 | 13.60(2.72) | 129 | 13.57(3.17) |
| | 여아 | 17 | 14.17(2.81) | 80 | 14.18(3.11) | 47 | 15.02(2.78) | 144 | 14.45(2.98) |
| | 계 | 31 | 14.25(2.52) | 149 | 13.81(3.36) | 93 | 14.32(2.82) | 273 | 14.04(3.10) |

<표IV-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투사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공감적이해수준 | 6.05 | 2 | 3.02 | 0.30 |
| 모의 연령 | 17.74 | 1 | 17.74 | 1.80 |
| 모의 학력 | 7.57 | 2 | 3.78 | 0.38 |
| 아동의 성별 | 46.25 | 1 | 46.25 | 4.69 |
| 공감적이해수준 × 연령 | 57.54 | 2 | 28.77 | 2.92 |
| 공감적이해수준 × 학력 | 27.91 | 4 | 6.97 | 0.70 |
| 공감적이해수준 × 성별 | 1.06 | 2 | 0.53 | 0.05 |
| 오차 | 2325.37 | 236 | 9.85 | |
| 전체 | 2639.03 | 268 | 9.84 | |

| | SS | df | MS | F |
|-----------|---------|-----|-------|--------|
| 준모의 수 준 | 13.11 | 2 | 6.55 | 0.67 |
| 모의 수 준 | 14.72 | 1 | 14.72 | 1.51 |
| 모의 수 준 | 15.50 | 2 | 7.75 | 0.79 |
| 아동의 수 준 | 55.55 | 1 | 55.55 | 5.72 * |
| 준모의 수 준 | 0.67 | 2 | 0.33 | 0.03 |
| 모의 수 준 | 39.03 | 4 | 9.75 | 1.00 |
| 모의 수 준 | 15.13 | 2 | 7.56 | 0.78 |
| 오차 | 2502.57 | 258 | 9.70 | |
| 전체 | 2686.37 | 277 | 9.69 | |
| 순수성 수 준 | 33.52 | 2 | 16.76 | 1.74 |
| 모의 수 준 | 21.04 | 1 | 21.04 | 2.19 |
| 모의 수 준 | 12.20 | 2 | 6.10 | 0.63 |
| 아동의 수 준 | 46.18 | 1 | 46.18 | 4.80 * |
| 순수성 수 준 | 13.39 | 2 | 6.69 | 0.69 |
| 모의 수 준 | 11.34 | 4 | 2.83 | 0.29 |
| 모의 수 준 | 29.60 | 2 | 14.80 | 1.54 |
| 오차 | 2420.44 | 252 | 9.60 | |
| 전체 | 2621.11 | 271 | 9.67 | |
| 구체성 수 준 | 2.06 | 2 | 1.03 | 0.10 |
| 모의 수 준 | 24.56 | 1 | 24.56 | 2.50 |
| 모의 수 준 | 12.46 | 2 | 6.23 | 0.63 |
| 아동의 수 준 | 46.39 | 1 | 46.39 | 4.72 * |
| 구체성 수 준 | 14.15 | 2 | 7.07 | 0.72 |
| 구체성 수 준 | 36.02 | 4 | 9.00 | 0.91 |
| 구체성 수 준 | 67.89 | 2 | 33.94 | 3.45 * |
| 오차 | 2346.97 | 239 | 9.82 | |
| 전체 | 2688.00 | 273 | 9.84 | |
| 직면수 수 준 | 46.70 | 2 | 23.35 | 2.34 |
| 모의 수 준 | 16.96 | 1 | 16.96 | 1.70 |
| 모의 수 준 | 11.74 | 2 | 5.87 | 0.59 |
| 아동의 수 준 | 54.74 | 1 | 54.74 | 5.50 * |
| 직면수 수 준 | 48.03 | 2 | 24.01 | 2.41 |
| 직면수 수 준 | 4.46 | 4 | 1.11 | 0.11 |
| 직면수 수 준 | 4.59 | 2 | 2.29 | 0.23 |
| 오차 | 2297.27 | 231 | 9.94 | |
| 전체 | 2571.90 | 263 | 9.77 | |
| 자아개방수 수 준 | 21.07 | 2 | 10.54 | 1.08 |
| 모의 수 준 | 15.72 | 1 | 15.72 | 1.62 |
| 모의 수 준 | 14.00 | 2 | 7.00 | 0.72 |
| 아동의 수 준 | 50.61 | 1 | 50.61 | 5.22 * |
| 자아개방수 수 준 | 1.86 | 2 | 0.93 | 0.09 |
| 자아개방수 수 준 | 11.47 | 4 | 2.86 | 0.29 |
| 자아개방수 수 준 | 11.96 | 2 | 5.98 | 0.61 |
| 오차 | 2343.03 | 242 | 9.68 | |
| 전체 | 2662.82 | 274 | 9.71 | |
| 즉시성 수 준 | 19.85 | 2 | 9.92 | 0.99 |
| 모의 수 준 | 18.70 | 1 | 18.70 | 1.87 |
| 모의 수 준 | 14.23 | 2 | 7.11 | 0.71 |
| 아동의 수 준 | 55.85 | 1 | 55.85 | 5.59 * |
| 즉시성 수 준 | 4.41 | 2 | 2.20 | 0.22 |
| 즉시성 수 준 | 35.03 | 4 | 8.76 | 0.87 |
| 즉시성 수 준 | 9.08 | 2 | 4.54 | 0.45 |
| 오차 | 2383.95 | 239 | 9.97 | |
| 전체 | 2618.55 | 272 | 9.62 | |

(* : p<.05)

<표IV-1>과 <표IV-2>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투사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 모든 변인에서 자녀의 성별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각 변인에 따라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이 투사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 이해에서는 ($F=4.69, P<.05$), 존중에서 ($F=5.72, P<.05$) 순수성에서 ($F=4.80, P<.05$) 구체성에서 ($F=4.72, P<.05$) 직면에서는 ($F=5.50, P<.05$) 자아개방에서 ($F=5.22, P<.05$) 즉시성에서 ($F=5.72, P<.05$) 이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모든 변인별로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투사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투사 방어기제는 구체성의 수준과 자녀의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속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F=3.45, P<.05$)

즉, 남자 아동의 투사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은 비축진일 때 13.25, 기본 축진일 때 13.57, 심화축진일 때 14.25로 어머니의 구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투사 방어기제 사용 평균 점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여자 아동은 비축진일 때 14.97, 기본 축진일 때 14.49, 심화 축진일 때 14.07로 어머니의 구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투사 방어기제 사용 평균 점수는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구체성 변인에서만 심화축진적 수준일 수록 남자 아동들이 투사 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여자 아동들은 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정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

축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부정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표 IV-3>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정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축진 | | 기본축진 | | 심화축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구체성 | 30대 | 48 | 13.10(2.62) | 49 | 13.16(2.38) | 39 | 14.23(2.53) | 136 | 13.44(2.54) |
| | 40대이상 | 41 | 13.04(2.41) | 66 | 13.46(2.28) | 31 | 13.38(2.15) | 138 | 13.32(2.28) |
| | 중졸 | 18 | 13.83(2.87) | 14 | 12.85(1.99) | 11 | 13.27(2.41) | 43 | 13.37(2.47) |
| | 고졸 | 60 | 13.05(2.44) | 81 | 13.13(2.39) | 51 | 14.23(2.26) | 192 | 13.40(2.41) |
| | 대졸이상 | 11 | 12.00(2.04) | 20 | 14.50(1.93) | 8 | 12.25(2.65) | 39 | 13.33(2.39) |
| | 남아 | 42 | 13.00(2.50) | 61 | 13.34(2.46) | 32 | 13.21(2.12) | 135 | 13.20(2.38) |
| | 여아 | 47 | 13.14(2.55) | 54 | 13.33(2.17) | 38 | 14.39(2.50) | 139 | 13.56(2.43) |
| | 계 | 89 | 13.07(2.51) | 115 | 13.33(2.32) | 70 | 13.85(2.39) | 274 | 13.38(2.41) |

<표IV-4>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정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구체성수준 | 23.46 | 2 | 11.73 | 2.10 |
| 모의 연령 | 0.65 | 1 | 0.65 | 0.11 |
| 모의 학력 | 0.02 | 2 | 0.01 | 0.00 |
| 아동의 성별 | 7.91 | 1 | 7.91 | 1.42 |
| 구체성수준×연령 | 7.71 | 2 | 3.85 | 0.69 |
| 구체성수준×학력 | 78.32 | 4 | 19.58 | 3.51 ** |
| 구체성수준×성별 | 9.24 | 2 | 4.62 | 0.82 |
| 오차 | 1331.74 | 239 | 5.57 | |
| 전체 | 1592.99 | 273 | 5.83 | |

(** : p<.01)

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3>과 같고, 다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IV-4>에 나타나 있다.

<표IV-3>과 표<IV-4>에서 보면,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부정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구체성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51, P<.01)

어머니의 학력별 구체성 수준에 따른 자녀의 부정 방어기제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비축진적 수준일 때, 중졸 어머니의 자녀가 13.83으로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축진적 수준일 때, 대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14.50으로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대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12.25로 부정 방어기제를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저학력 비축진적 수준일 때,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고학력 심화축진적일수록 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왜곡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

축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왜곡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5>와 같고, 다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IV-6>에 나타나 있다.

<표IV-5>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왜곡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 이해 | 30대 | 28 | 12.64(2.81) | 74 | 13.47(3.50) | 31 | 12.51(2.91) | 133 | 13.07(3.24) |
| | 40대 이상 | 32 | 13.71(3.76) | 69 | 13.75(3.05) | 37 | 14.21(2.92) | 138 | 13.86(3.18) |
| | 중졸 | 11 | 12.81(3.06) | 20 | 11.55(2.68) | 13 | 13.38(2.18) | 44 | 14.40(2.71) |
| | 고졸 이상 | 43 | 13.55(3.51) | 97 | 14.00(3.39) | 48 | 13.14(3.10) | 188 | 13.68(3.35) |
| | 대졸 이상 | 6 | 11.50(2.58) | 26 | 13.73(2.76) | 7 | 15.57(3.35) | 39 | 13.71(3.01) |
| | 계 | 60 | 13.21(3.37) | 143 | 13.60(3.28) | 68 | 13.44(3.02) | 271 | 13.47(3.23) |
| 존중 | 30대 | 16 | 14.12(2.96) | 64 | 12.26(3.34) | 57 | 13.87(3.05) | 137 | 13.15(3.27) |
| | 40대 이상 | 15 | 13.53(2.89) | 76 | 14.13(3.51) | 51 | 13.74(2.79) | 142 | 13.92(3.19) |
| | 중졸 | 5 | 13.00(1.73) | 25 | 12.48(2.97) | 17 | 12.41(2.50) | 47 | 12.51(2.66) |
| | 고졸 | 20 | 14.25(3.20) | 95 | 13.50(3.72) | 78 | 13.94(3.00) | 193 | 13.76(3.39) |
| | 대졸 이상 | 6 | 13.16(2.63) | 20 | 13.20(3.34) | 13 | 14.84(2.44) | 39 | 13.74(3.00) |
| | 계 | 31 | 13.83(2.89) | 140 | 13.27(3.55) | 108 | 13.81(2.92) | 279 | 13.54(3.25) |
| 순수성 | 30대 | 19 | 13.21(3.30) | 62 | 13.35(3.49) | 52 | 12.80(2.89) | 133 | 13.12(3.23) |
| | 40대 이상 | 24 | 14.16(3.97) | 70 | 13.64(3.15) | 46 | 14.30(2.83) | 140 | 13.95(3.20) |
| | 중졸 | 9 | 12.55(1.81) | 18 | 12.77(3.45) | 19 | 12.10(2.18) | 46 | 12.45(2.66) |
| | 고졸 | 30 | 14.16(4.05) | 95 | 13.74(3.30) | 63 | 13.61(3.14) | 188 | 13.77(3.36) |
| | 대졸 이상 | 4 | 13.25(4.03) | 19 | 13.00(3.21) | 16 | 14.75(2.32) | 39 | 13.74(3.00) |
| | 계 | 43 | 13.74(3.68) | 132 | 13.50(3.30) | 98 | 13.51(2.94) | 273 | 13.54(3.23) |
| 구체성 | 30대 | 44 | 12.81(3.11) | 52 | 13.15(3.34) | 39 | 13.71(3.33) | 135 | 13.20(3.26) |
| | 40대 이상 | 41 | 14.41(3.51) | 68 | 13.67(3.12) | 32 | 14.06(2.80) | 141 | 13.97(3.16) |
| | 중졸 | 18 | 13.00(3.06) | 17 | 11.88(2.14) | 12 | 12.66(2.70) | 47 | 12.51(2.66) |
| | 고졸 | 57 | 13.73(3.57) | 83 | 13.57(3.44) | 50 | 14.34(3.03) | 190 | 13.82(3.38) |
| | 대졸 이상 | 10 | 13.80(3.01) | 20 | 14.25(2.61) | 9 | 12.88(3.55) | 39 | 13.82(2.91) |
| | 계 | 85 | 13.58(3.39) | 120 | 13.45(3.21) | 71 | 13.87(3.09) | 276 | 13.60(3.23) |
| 자아개발 | 30대 | 29 | 13.03(3.01) | 77 | 12.87(3.60) | 29 | 13.82(2.98) | 135 | 13.11(3.35) |
| | 40대 이상 | 49 | 14.61(3.49) | 66 | 13.25(2.72) | 26 | 14.30(3.54) | 141 | 13.92(3.20) |
| | 중졸 | 9 | 12.44(2.45) | 24 | 12.12(2.45) | 13 | 13.07(3.22) | 46 | 12.45(2.66) |
| | 고졸 | 55 | 14.38(3.69) | 101 | 13.06(3.26) | 35 | 14.65(3.29) | 191 | 13.73(3.45) |
| | 대졸 이상 | 14 | 13.64(2.30) | 18 | 14.16(3.66) | 7 | 12.85(2.47) | 39 | 13.74(3.00) |
| | 계 | 78 | 14.02(3.39) | 143 | 13.04(3.22) | 55 | 14.05(3.23) | 276 | 13.52(3.30) |

<표IV-6>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왜곡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공감적 이해수준 | 5.51 | 2 | 2.75 | 0.27 |
| 모의 연령 | 51.41 | 1 | 51.41 | 5.12 * |
| 모의 학력 | 67.17 | 2 | 33.58 | 3.34 * |
| 아동의 성별 | 4.93 | 1 | 4.93 | 0.49 |
| 공감적 이해수준 × 연령 | 5.49 | 2 | 2.74 | 0.27 |
| 공감적 이해수준 × 학력 | 100.31 | 4 | 25.07 | 2.49 |
| 공감적 이해수준 × 성별 | 12.00 | 2 | 6.00 | 0.59 |
| 오차 | 2378.81 | 237 | 10.03 | |
| 전체 | 2821.63 | 270 | 10.45 | |
| 존중수준 | 23.75 | 2 | 11.87 | 1.18 |
| 모의 연령 | 52.01 | 1 | 52.01 | 5.20 * |
| 모의 학력 | 66.06 | 2 | 33.03 | 3.30 * |
| 아동의 성별 | 5.79 | 1 | 5.79 | 0.58 |
| 존중수준 × 연령 | 51.79 | 2 | 25.89 | 2.59 |
| 존중수준 × 학력 | 17.01 | 4 | 4.25 | 0.42 |
| 존중수준 × 성별 | 61.49 | 2 | 30.74 | 3.07 |
| 오차 | 2588.24 | 259 | 9.99 | |
| 전체 | 2941.09 | 278 | 10.57 | |

| | | | | |
|-----------|---------|-----|-------|-------|
| 순수성수준 | 3.76 | 2 | 1.88 | 0.18 |
| 모의연령 | 53.85 | 1 | 53.85 | 5.27* |
| 모의학력 | 76.61 | 2 | 38.31 | 3.75* |
| 순수성수준×연령 | 7.15 | 1 | 7.15 | 0.70 |
| 순수성수준×학력 | 17.62 | 2 | 8.81 | 0.86 |
| 순수성수준×성별 | 21.33 | 4 | 5.33 | 0.52 |
| 오차 | 20.27 | 2 | 10.13 | 0.99 |
| 전체 | 2583.69 | 253 | 10.21 | |
| | 2849.67 | 272 | 10.47 | |
| 구체성수준 | 14.64 | 2 | 7.32 | 0.69 |
| 모의연령 | 52.06 | 1 | 52.06 | 4.95* |
| 모의학력 | 76.84 | 2 | 38.42 | 3.65* |
| 아동의성별 | 1.39 | 1 | 1.39 | 0.13 |
| 구체성수준×연령 | 15.83 | 2 | 7.91 | 0.75 |
| 구체성수준×학력 | 15.39 | 4 | 3.85 | 0.36 |
| 구체성수준×성별 | 6.67 | 2 | 3.33 | 0.31 |
| 오차 | 2533.05 | 241 | 10.51 | |
| 전체 | 2876.15 | 275 | 10.45 | |
| 자아개방수준 | 59.81 | 2 | 29.90 | 2.81 |
| 모의연령 | 43.77 | 1 | 43.77 | 4.12* |
| 모의학력 | 73.56 | 2 | 36.78 | 3.46* |
| 아동의성별 | 5.21 | 1 | 5.21 | 0.49 |
| 자아개방수준×연령 | 24.65 | 2 | 12.32 | 1.16 |
| 자아개방수준×학력 | 56.92 | 4 | 14.23 | 1.34 |
| 자아개방수준×성별 | 11.45 | 2 | 5.72 | 0.53 |
| 오차 | 2571.06 | 242 | 10.62 | |
| 전체 | 2996.82 | 275 | 10.89 | |

(* : p<.05)

<표IV-5>와 <표IV-6>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왜곡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등의 변인에서 어머니의 연령,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의사소통 변인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왜곡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이해에서 (F=5.12, P<.05), 존중에서 (F=5.20, P<.05), 순수성에서 (F=5.27, P<.05), 구체성에서 (F=4.95, P<.05), 자아개방에서 (F=4.12, P<.05)이다.

여기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등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40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왜곡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의사소통 변인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왜곡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감적이해에서 (F=3.24, P<.05) 존중에서 (F=3.30, P<.05) 순수성에서 (F=3.75, P<.05) 구체성에서 (F=3.24, P<.05) 자아개방에서 (F=3.46, P<.05)

여기서는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적이해 변인에서 고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들

보다 중졸 어머니의 자녀들이 왜곡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등의 변인들에서는 고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중졸 어머니의 자녀들이 왜곡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왜곡 방어기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동일시 척도의 사용 정도

축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동일시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7>과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8>에 나타나 있다.

<표IV-7>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동일시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축진 | | 기본축진 | | 심화축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중졸 | 11 | 15.63(2.46) | 21 | 14.19(3.78) | 13 | 14.84(1.46) | 45 | 14.73(2.97) |
| | 고졸 | 45 | 14.51(2.35) | 97 | 14.60(2.59) | 47 | 15.04(2.07) | 189 | 14.69(2.41) |
| | 대졸이상 | 7 | 14.28(1.38) | 24 | 13.83(3.30) | 7 | 11.57(3.90) | 38 | 13.50(3.23) |
| | 계 | 63 | 14.68(2.29) | 142 | 14.41(2.91) | 67 | 14.64(2.42) | 272 | 14.53(2.66) |
| 존중 | 중졸 | 5 | 14.00(3.31) | 26 | 15.61(2.75) | 18 | 14.55(3.45) | 49 | 15.06(3.07) |
| | 고졸 | 22 | 15.72(2.05) | 94 | 14.68(2.73) | 77 | 14.59(2.21) | 193 | 14.76(2.47) |
| | 대졸이상 | 6 | 13.66(1.75) | 20 | 13.35(3.66) | 13 | 14.07(3.45) | 39 | 13.64(3.31) |
| | 계 | 33 | 15.09(2.33) | 140 | 14.66(2.93) | 108 | 14.52(2.59) | 281 | 14.66(2.73) |
| 순수성 | 중졸 | 10 | 16.00(2.62) | 19 | 14.63(3.63) | 19 | 14.73(2.53) | 49 | 14.95(3.02) |
| | 고졸 | 32 | 14.68(2.48) | 96 | 14.94(2.46) | 60 | 14.51(2.45) | 188 | 14.76(2.46) |
| | 대졸이상 | 4 | 13.50(0.57) | 18 | 13.44(3.43) | 17 | 13.88(3.65) | 39 | 13.64(3.31) |
| | 계 | 46 | 14.86(2.47) | 133 | 14.69(2.82) | 96 | 14.44(2.70) | 275 | 14.64(2.71) |
| 구체성 | 중졸 | 18 | 15.00(2.70) | 17 | 14.70(2.73) | 13 | 15.23(3.91) | 48 | 14.95(3.02) |
| | 고졸 | 59 | 14.94(2.44) | 79 | 14.86(2.43) | 52 | 14.38(2.59) | 190 | 14.75(2.48) |
| | 대졸이상 | 11 | 14.90(3.70) | 19 | 13.21(3.52) | 8 | 13.00(2.13) | 38 | 13.65(3.35) |
| | 계 | 88 | 14.95(2.64) | 115 | 14.56(2.72) | 73 | 14.38(2.85) | 276 | 14.64(2.73) |
| 직면 | 중졸 | 7 | 14.57(3.15) | 23 | 15.08(2.96) | 14 | 15.28(2.81) | 44 | 15.06(2.88) |
| | 고졸 | 37 | 14.94(2.51) | 98 | 14.67(2.34) | 50 | 14.62(2.53) | 185 | 14.71(2.42) |
| | 대졸이상 | 4 | 14.75(1.50) | 22 | 13.50(3.67) | 12 | 13.58(3.31) | 38 | 13.65(3.35) |
| | 계 | 48 | 14.87(2.50) | 143 | 14.55(2.71) | 76 | 14.57(2.72) | 267 | 14.62(2.67) |
| 자아개방 | 중졸 | 11 | 15.18(3.81) | 24 | 14.62(2.73) | 13 | 15.38(2.98) | 48 | 14.95(3.02) |
| | 고졸 | 57 | 15.01(2.37) | 99 | 14.38(2.65) | 36 | 15.30(2.43) | 192 | 14.74(2.55) |
| | 대졸이상 | 14 | 13.64(2.76) | 18 | 13.83(3.29) | 7 | 13.14(4.67) | 39 | 13.64(3.31) |
| | 계 | 82 | 14.80(2.68) | 141 | 14.35(2.74) | 56 | 15.05(2.93) | 279 | 14.62(2.77) |
| 즉시성 | 중졸 | 7 | 15.28(2.81) | 27 | 14.37(3.07) | 14 | 15.92(2.94) | 48 | 14.95(3.02) |
| | 고졸 | 21 | 14.28(2.23) | 104 | 14.74(2.56) | 64 | 14.81(2.24) | 189 | 14.71(2.41) |
| | 대졸이상 | 4 | 14.00(0.00) | 19 | 13.47(3.61) | 16 | 13.75(3.47) | 39 | 13.64(3.31) |
| | 계 | 32 | 14.46(2.22) | 150 | 14.51(2.82) | 94 | 14.79(2.63) | 276 | 14.60(2.69) |

<표IV-8>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동일시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1.40 | 2 | 0.70 | 0.10 |
| 모의 학력 | 13.62 | 1 | 13.62 | 1.95* |
| 아동의 성별 | 49.71 | 2 | 24.85 | 3.55* |
| 자녀의 개성 | 0.51 | 1 | 0.51 | 0.07 |
| 자녀의 연령 | 11.57 | 2 | 5.78 | 0.82 |
| 자녀의 학력 | 49.30 | 4 | 12.32 | 1.76 |
| 자녀의 성별 | 0.81 | 2 | 0.40 | 0.05 |
| 오차 | 1662.92 | 238 | 6.98 | |
| 전체 | 1917.70 | 271 | 7.07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10.62 | 2 | 5.31 | 0.74 |
| 모의 학력 | 17.03 | 1 | 17.03 | 2.38 |
| 아동의 성별 | 56.33 | 2 | 28.16 | 3.94* |
| 자녀의 개성 | 0.32 | 1 | 0.32 | 0.04 |
| 자녀의 연령 | 6.78 | 2 | 3.39 | 0.47 |
| 자녀의 학력 | 32.09 | 4 | 8.02 | 1.12 |
| 자녀의 성별 | 20.43 | 2 | 10.21 | 1.42 |
| 오차 | 1865.62 | 261 | 7.14 | |
| 전체 | 2100.88 | 280 | 7.50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3.07 | 2 | 1.53 | 0.21 |
| 모의 학력 | 17.36 | 1 | 17.36 | 2.44* |
| 아동의 성별 | 48.29 | 2 | 24.14 | 3.40 |
| 자녀의 개성 | 0.01 | 1 | 0.01 | 0.00 |
| 자녀의 연령 | 26.35 | 2 | 13.17 | 1.85 |
| 자녀의 학력 | 24.49 | 4 | 6.12 | 0.86 |
| 자녀의 성별 | 18.73 | 2 | 9.36 | 1.32 |
| 오차 | 1809.43 | 255 | 7.09 | |
| 전체 | 2025.36 | 274 | 7.39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14.05 | 2 | 7.03 | 1.01 |
| 모의 학력 | 17.63 | 1 | 17.63 | 2.54 |
| 아동의 성별 | 46.74 | 2 | 23.37 | 3.37 |
| 자녀의 개성 | 1.07 | 1 | 1.07 | 0.15 |
| 자녀의 연령 | 3.80 | 2 | 1.90 | 0.27 |
| 자녀의 학력 | 26.68 | 4 | 6.67 | 0.96 |
| 자녀의 성별 | 14.65 | 2 | 7.32 | 1.05 |
| 오차 | 1670.89 | 241 | 6.93 | |
| 전체 | 2055.48 | 275 | 7.47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1.63 | 2 | 0.81 | 0.11 |
| 모의 학력 | 9.83 | 1 | 9.83 | 1.38 |
| 아동의 성별 | 46.06 | 2 | 23.03 | 3.23* |
| 자녀의 개성 | 0.40 | 1 | 0.40 | 0.05 |
| 자녀의 연령 | 10.74 | 2 | 5.37 | 0.75 |
| 자녀의 학력 | 11.38 | 4 | 2.84 | 0.40 |
| 자녀의 성별 | 9.53 | 2 | 4.76 | 0.67 |
| 오차 | 1665.14 | 234 | 7.11 | |
| 전체 | 1900.79 | 266 | 7.14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21.44 | 2 | 10.72 | 1.46 |
| 모의 학력 | 18.99 | 1 | 18.99 | 2.59* |
| 아동의 성별 | 50.32 | 2 | 25.16 | 3.44* |
| 자녀의 개성 | 0.51 | 1 | 0.51 | 0.07 |
| 자녀의 연령 | 3.86 | 2 | 1.93 | 0.26 |
| 자녀의 학력 | 21.39 | 4 | 5.34 | 0.73 |
| 자녀의 성별 | 10.56 | 2 | 5.28 | 0.72 |
| 오차 | 1790.79 | 245 | 7.30 | |
| 전체 | 2137.23 | 278 | 7.68 | |
| 부모의 의사소통수준 | 8.98 | 2 | 4.49 | 0.62 |
| 모의 학력 | 17.43 | 1 | 17.43 | 2.41 |
| 아동의 성별 | 50.05 | 2 | 25.02 | 3.46 |
| 자녀의 개성 | 1.02 | 1 | 1.02 | 0.14 |
| 자녀의 연령 | 3.32 | 2 | 1.66 | 0.23 |
| 자녀의 학력 | 22.14 | 4 | 5.53 | 0.76 |
| 자녀의 성별 | 8.58 | 2 | 4.29 | 0.59 |
| 오차 | 1747.74 | 242 | 7.22 | |
| 전체 | 1991.95 | 275 | 7.24 | |

(* : p<.05)

<표IV-7>과 <표IV-8>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동일시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공감적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의사소통 변인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동일시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이해에서 ($F=3.55, P<.05$), 존중에서 ($F=3.94, P<.05$), 순수성에서 ($F=3.40, P<.05$), 구체성에서 ($F=3.37, P<.05$), 직면에서 ($F=3.23, P<.05$), 자아개방에서 ($F=3.44, P<.05$), 즉시성에서 ($F=3.46, P<.05$)이다.

여기서는 모든 의사소통 변인에서 중졸 어머니의 자녀가 사용하는 동일시 방어기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대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사용하는 동일시 방어기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일시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5.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수동공격 척도의 사용 정도

<표IV-9> 어머니의 연령과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수동공격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존중 | 중졸 | 5 | 14.80(3.03) | 22 | 14.77(2.84) | 17 | 13.47(3.64) | 44 | 14.27(3.18) |
| | 고졸 | 21 | 14.19(3.38) | 95 | 13.78(3.42) | 75 | 13.53(3.27) | 191 | 13.73(3.34) |
| | 대졸이상 | 6 | 11.50(3.67) | 20 | 12.30(3.16) | 14 | 12.85(4.38) | 40 | 12.37(3.63) |
| | 계 | 32 | 13.78(3.47) | 137 | 13.72(3.35) | 106 | 13.43(3.46) | 275 | 13.62(3.39) |
| 순수성 | 중졸 | 8 | 15.37(1.92) | 18 | 14.00(3.83) | 17 | 14.00(3.04) | 43 | 14.25(3.22) |
| | 고졸 | 31 | 14.09(3.09) | 94 | 14.09(3.52) | 61 | 13.03(3.01) | 186 | 13.74(3.31) |
| | 대졸이상 | 4 | 12.00(4.24) | 19 | 12.21(3.04) | 17 | 12.64(4.27) | 40 | 12.37(3.63) |
| | 계 | 43 | 14.13(3.07) | 131 | 13.80(3.54) | 95 | 13.13(3.26) | 269 | 13.62(3.38) |
| 구체성 | 30대 | 47 | 13.38(3.60) | 49 | 13.02(3.37) | 35 | 13.54(3.56) | 131 | 13.29(3.49) |
| | 40대이상 | 41 | 14.92(3.43) | 66 | 13.87(2.74) | 33 | 13.15(3.87) | 140 | 14.01(3.28) |
| | 중졸 | 16 | 15.62(2.41) | 15 | 13.40(2.82) | 12 | 13.41(4.10) | 43 | 14.23(3.21) |
| | 고졸 | 61 | 14.01(3.49) | 80 | 13.60(3.11) | 47 | 13.76(3.40) | 188 | 13.77(3.30) |
| 대졸이상 | 11 | 12.36(4.82) | 20 | 13.25(3.05) | 9 | 11.11(4.22) | 40 | 12.52(3.86) | |
| 계 | 88 | 14.10(3.59) | 115 | 13.51(3.04) | 68 | 13.35(3.69) | 271 | 13.66(3.39) | |
| 직면 | 중졸 | 6 | 14.16(3.65) | 21 | 14.85(3.00) | 12 | 13.50(3.50) | 39 | 14.33(3.23) |
| | 고졸 | 37 | 14.56(2.89) | 96 | 13.44(3.30) | 49 | 13.42(3.52) | 182 | 13.67(3.30) |
| | 대졸이상 | 4 | 11.25(1.50) | 23 | 13.17(3.55) | 12 | 11.33(4.22) | 39 | 12.41(3.67) |
| | 계 | 47 | 14.23(3.00) | 140 | 13.61(3.32) | 73 | 13.09(3.67) | 260 | 13.58(3.38) |
| 자아개방 | 중졸 | 11 | 14.00(4.02) | 22 | 13.95(2.83) | 10 | 15.20(3.22) | 43 | 14.25(3.22) |
| | 고졸 | 56 | 14.92(3.04) | 99 | 13.05(3.37) | 34 | 13.76(3.44) | 189 | 13.73(3.37) |
| | 대졸이상 | 14 | 12.50(4.09) | 19 | 12.00(3.65) | 7 | 13.14(2.91) | 40 | 12.37(3.63) |
| | 계 | 81 | 14.38(3.45) | 140 | 13.15(3.35) | 51 | 13.05(3.34) | 272 | 13.61(3.42) |
| 즉시성 | 중졸 | 5 | 15.60(0.54) | 24 | 14.04(3.53) | 14 | 14.14(3.25) | 43 | 14.25(3.22) |
| | 고졸 | 21 | 14.09(2.64) | 104 | 13.50(3.44) | 61 | 13.86(3.27) | 186 | 13.69(3.30) |
| | 대졸이상 | 4 | 16.25(5.43) | 20 | 12.05(3.33) | 16 | 11.81(3.14) | 40 | 12.37(3.63) |
| | 계 | 30 | 14.63(2.94) | 148 | 13.39(3.46) | 91 | 13.54(3.31) | 269 | 13.58(3.37) |

<표 IV-10>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수동공격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중년모의 수준 | 6.42 | 2 | 3.21 | 0.28 |
| 모의 연령 | 30.41 | 1 | 30.41 | 2.71 |
| 모의 학력 | 88.20 | 2 | 44.10 | 3.93 * |
| 아동의 성별 | 1.96 | 1 | 1.96 | 0.17 |
| 중년모의 수준 × 성별 | 9.40 | 2 | 4.70 | 0.42 |
| 중년모의 연령 × 성별 | 12.32 | 4 | 3.08 | 0.27 |
| 중년모의 학력 × 성별 | 29.25 | 2 | 14.62 | 1.30 |
| 오차 | 2854.68 | 255 | 11.19 | |
| 전체 | 3166.66 | 274 | 11.55 | |
| 중년모의 수준 | 27.65 | 2 | 13.82 | 1.24 |
| 모의 연령 | 34.71 | 1 | 34.71 | 3.12 |
| 모의 학력 | 80.05 | 2 | 40.02 | 3.60 * |
| 아동의 성별 | 2.40 | 1 | 2.40 | 0.21 |
| 중년모의 수준 × 성별 | 14.56 | 2 | 7.28 | 0.65 |
| 중년모의 연령 × 성별 | 12.97 | 4 | 3.24 | 0.29 |
| 중년모의 학력 × 성별 | 4.81 | 2 | 2.40 | 0.21 |
| 오차 | 2762.76 | 249 | 11.09 | |
| 전체 | 3067.07 | 268 | 11.44 | |
| 구체모의 수준 | 26.50 | 2 | 13.25 | 1.26 |
| 모의 연령 | 44.90 | 1 | 44.90 | 4.26 * |
| 모의 학력 | 68.89 | 2 | 34.44 | 3.27 * |
| 아동의 성별 | 2.13 | 1 | 2.13 | 0.20 |
| 구체모의 수준 × 성별 | 29.07 | 2 | 14.53 | 1.38 |
| 구체모의 연령 × 성별 | 38.93 | 4 | 9.73 | 0.92 |
| 구체모의 학력 × 성별 | 14.39 | 2 | 7.19 | 0.68 |
| 오차 | 2482.40 | 236 | 10.51 | |
| 전체 | 3120.44 | 270 | 11.55 | |
| 직면모의 수준 | 32.60 | 2 | 16.30 | 1.50 |
| 모의 연령 | 23.82 | 1 | 23.82 | 2.19 |
| 모의 학력 | 73.05 | 2 | 36.52 | 3.36 * |
| 아동의 성별 | 4.88 | 1 | 4.88 | 0.45 |
| 직면모의 수준 × 성별 | 37.66 | 2 | 18.83 | 1.73 |
| 직면모의 연령 × 성별 | 34.84 | 4 | 8.71 | 0.80 |
| 직면모의 학력 × 성별 | 0.00 | 2 | 0.00 | 0.00 |
| 오차 | 2602.26 | 240 | 10.84 | |
| 전체 | 2961.30 | 259 | 11.43 | |
| 자아개방수준 | 92.55 | 2 | 46.27 | 4.19 * |
| 모의 연령 | 21.62 | 1 | 21.62 | 1.96 * |
| 모의 학력 | 91.54 | 2 | 45.77 | 4.14 * |
| 아동의 성별 | 2.42 | 1 | 2.42 | 0.22 |
| 자아개방수준 × 성별 | 11.06 | 2 | 5.53 | 0.50 |
| 자아개방수 × 성별 | 43.03 | 4 | 10.75 | 0.97 |
| 자아개방수 × 성별 × 연령 | 31.03 | 2 | 15.51 | 1.40 |
| 오차 | 2636.25 | 239 | 11.03 | |
| 전체 | 3178.23 | 271 | 11.72 | |
| 즉시성수준 | 35.97 | 2 | 17.99 | 1.64 |
| 모의 연령 | 25.17 | 1 | 25.17 | 2.30 |
| 모의 학력 | 81.87 | 2 | 40.93 | 3.74 * |
| 아동의 성별 | 4.28 | 1 | 4.28 | 0.39 |
| 즉시성수준 × 성별 | 5.34 | 2 | 2.67 | 0.24 |
| 즉시성수 × 성별 | 48.50 | 4 | 12.12 | 1.10 |
| 즉시성수 × 성별 × 연령 | 12.07 | 2 | 6.03 | 0.55 |
| 오차 | 2721.72 | 249 | 10.93 | |
| 전체 | 3049.19 | 268 | 11.37 | |

(* : p<.05)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수동공격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표IV-9>와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10>에 나타나 있다.

<표IV-9>와 <표IV-10>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수동공격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존중, 순수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체성 변인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아개방의 수준별로 수동공격 방어기제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의사소통 변인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수동공격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존중에서 ($F=3.93, P<.05$), 순수성에서 ($F=3.60, P<.05$), 구체성에서 ($F=3.27, P<.05$), 직면에서 ($F=3.36, P<.05$), 자아개방에서 ($F=4.14, P<.05$), 즉시성에서 ($F=3.74, P<.05$)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중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 자녀들은 수동공격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성 변인에서는 ($F=4.26, P<.05$)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수동공격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아개방 변인에서는 자아개방의 수준별로 비촉진 수준 14.38, 기본촉진수준 13.15, 심화촉진 수준 13.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4.19, P<.05$)

이것은 자아개방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수동공격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화 척도의 사용 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행동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11>와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12>에 나타나 있다.

<표IV-11>와 <표IV-12>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행동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아동의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수성 변인의 수준과 자녀의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속에서도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화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축진 | | 기본축진 | | 심화축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존중 | 남아 | 13 | 14.30(2.05) | 72 | 12.45(3.00) | 53 | 13.58(3.23) | 138 | 13.06(3.07) |
| | 여아 | 20 | 13.55(3.60) | 71 | 14.04(3.09) | 57 | 14.08(2.47) | 148 | 13.99(2.93) |
| | 계 | 33 | 13.84(3.07) | 143 | 13.24(3.14) | 110 | 13.84(2.86) | 286 | 13.54(3.03) |
| 순수성 | 남아 | 20 | 12.40(3.39) | 68 | 12.91(3.24) | 49 | 13.57(2.69) | 137 | 13.07(3.08) |
| | 여아 | 25 | 14.80(2.39) | 67 | 13.97(3.12) | 51 | 13.60(2.91) | 143 | 13.98(2.94) |
| | 계 | 45 | 13.73(3.09) | 135 | 13.43(3.21) | 100 | 13.59(2.79) | 280 | 13.53(3.04) |
| 구체성 | 남아 | 42 | 12.66(3.28) | 62 | 13.30(3.20) | 34 | 13.23(2.69) | 138 | 13.09(3.10) |
| | 여아 | 46 | 14.45(2.88) | 58 | 13.48(2.74) | 40 | 14.17(3.16) | 144 | 13.98(2.92) |
| | 계 | 88 | 13.60(3.18) | 120 | 13.39(2.98) | 74 | 13.74(2.97) | 282 | 13.54(3.04) |
| 직면 | 남아 | 24 | 12.83(2.95) | 75 | 13.28(3.16) | 32 | 12.68(3.15) | 131 | 13.05(3.11) |
| | 여아 | 25 | 14.32(2.39) | 71 | 14.15(2.83) | 44 | 13.50(3.39) | 140 | 13.97(2.95) |
| | 계 | 49 | 13.59(2.76) | 146 | 13.70(3.03) | 76 | 13.15(3.30) | 271 | 13.53(3.06) |
| 자아개방 | 남아 | 41 | 13.43(3.01) | 70 | 13.17(2.86) | 26 | 12.34(3.67) | 137 | 13.09(3.07) |
| | 여아 | 41 | 14.02(3.15) | 75 | 14.16(2.86) | 30 | 13.63(2.76) | 146 | 14.01(2.91) |
| | 계 | 82 | 13.73(3.08) | 145 | 13.68(2.90) | 56 | 13.03(3.25) | 283 | 13.56(3.02) |
| 즉시성 | 남아 | 14 | 13.85(2.62) | 74 | 13.05(3.28) | 47 | 12.74(2.93) | 135 | 13.02(3.10) |
| | 여아 | 17 | 14.17(2.78) | 80 | 13.55(2.85) | 48 | 14.75(2.99) | 145 | 14.02(2.92) |
| | 계 | 31 | 14.03(2.67) | 154 | 13.31(3.07) | 95 | 13.75(3.11) | 280 | 13.54(3.04) |

<표 IV-1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화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존중수준 | 25.33 | 2 | 12.66 | 1.43 |
| 모의 연령 | 9.41 | 1 | 9.41 | 1.06 |
| 모의 학력 | 25.06 | 2 | 12.53 | 1.42 |
| 아동의 성별 | 57.78 | 1 | 57.78 | 6.56 * |
| 존중수준 × 연령 | 13.02 | 2 | 6.51 | 0.74 |
| 존중수준 × 학력 | 11.27 | 4 | 2.82 | 0.32 |
| 존중수준 × 성별 | 37.37 | 2 | 18.68 | 2.12 |
| 오차 | 2342.32 | 266 | 8.80 | |
| 전체 | 2620.90 | 285 | 9.19 | |
| 순수성수준 | 2.06 | 2 | 1.03 | 0.11 |
| 모의 연령 | 10.91 | 1 | 10.91 | 1.20 |
| 모의 학력 | 22.74 | 2 | 11.37 | 1.25 |
| 아동의 성별 | 57.77 | 1 | 57.77 | 6.39 * |
| 순수성수준 × 연령 | 9.21 | 2 | 4.60 | 0.51 |
| 순수성수준 × 학력 | 13.42 | 4 | 3.35 | 0.37 |
| 순수성수준 × 성별 | 57.09 | 2 | 28.54 | 3.16 * |
| 오차 | 2347.50 | 260 | 9.02 | |
| 전체 | 2587.56 | 279 | 9.27 | |
| 구체성수준 | 4.20 | 2 | 2.10 | 0.24 |
| 모의 연령 | 9.87 | 1 | 9.87 | 1.14 |
| 모의 학력 | 23.17 | 2 | 11.58 | 1.34 |
| 아동의 성별 | 52.76 | 1 | 52.76 | 6.10 * |
| 구체성수준 × 연령 | 8.21 | 2 | 4.10 | 0.47 |
| 구체성수준 × 학력 | 39.08 | 4 | 9.77 | 1.13 |
| 구체성수준 × 성별 | 30.56 | 2 | 15.28 | 1.76 |
| 오차 | 2133.48 | 247 | 8.63 | |
| 전체 | 2597.80 | 281 | 9.24 | |

| | SS | df | MS | F |
|-------------|---------|-----|-------|---------|
| 직면수준 | 21.19 | 2 | 10.59 | 1.16 |
| 모의 연령 | 11.56 | 1 | 11.56 | 1.26 |
| 모의 학력 | 28.74 | 2 | 14.37 | 1.57 |
| 아동의 성별 | 64.89 | 1 | 64.89 | 7.10 ** |
| 직면수준 × 연령 | 4.44 | 2 | 2.22 | 0.24 |
| 직면수준 × 학력 | 16.99 | 4 | 4.25 | 0.46 |
| 직면수준 × 성별 | 5.19 | 2 | 2.59 | 0.28 |
| 오차 | 2174.46 | 238 | 9.13 | |
| 전체 | 2531.48 | 270 | 9.37 | |
| 자아개방수준 | 22.98 | 2 | 11.49 | 1.28 |
| 모의 연령 | 7.35 | 1 | 7.35 | 0.82 |
| 모의 학력 | 26.25 | 2 | 13.13 | 1.47 ** |
| 아동의 성별 | 61.00 | 1 | 61.00 | 6.83 ** |
| 자아개방수준 × 연령 | 15.70 | 2 | 7.85 | 0.88 |
| 자아개방수준 × 학력 | 14.26 | 4 | 3.56 | 0.39 |
| 자아개방수준 × 성별 | 2.59 | 2 | 1.29 | 0.14 |
| 오차 | 2223.12 | 249 | 8.92 | |
| 전체 | 2583.40 | 282 | 9.16 | |
| 즉시성수준 | 21.44 | 2 | 10.72 | 1.22 |
| 모의 연령 | 10.85 | 1 | 10.85 | 1.23 |
| 모의 학력 | 24.33 | 2 | 12.16 | 1.38 |
| 아동의 성별 | 68.53 | 1 | 68.53 | 7.81 ** |
| 즉시성수준 × 연령 | 0.27 | 2 | 0.13 | 0.01 |
| 즉시성수준 × 학력 | 65.56 | 4 | 16.39 | 1.87 |
| 즉시성수준 × 성별 | 26.86 | 2 | 13.43 | 1.53 |
| 오차 | 2156.41 | 246 | 8.76 | |
| 전체 | 2589.48 | 279 | 9.28 | |

(* : p<.05, ** : p<.01)

각 의사소통 변인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행동화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존중에서는 (F=6.56, P<.05), 순수성에서는 (F=6.39, P<.05), 구체성에서는 (F=6.10, P<.05), 직면에서는 (F=7.10, P<.01), 자아개방에서는 (F=6.83, P<.01), 즉시성에서는 (F=7.81, P<.01)이다.

여기서는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의사소통 변인에서 행동화 방어기제 남자 아동들이 여자아동들 보다 일관되게 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행동화 방어기제는 촉진적 의사소통 순수성의 수준과 자녀의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속에서도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순수성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남자 아동들은 행동화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고, 여자 아동들은 비촉진 수준일수록 행동화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반동형성 척도의 사용 정도

축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반동형성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13>과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14>에 나타나 있다.

<표IV-13>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반동형성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축진 | | 기본축진 | | 심화축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30대 | 30 | 15.33(3.03) | 75 | 14.44(3.05) | 30 | 14.63(1.95) | 135 | 14.68(2.84) |
| | 40대이상 | 33 | 15.45(2.33) | 70 | 15.48(2.81) | 36 | 15.72(2.86) | 139 | 15.53(2.70) |
| | 계 | 63 | 15.39(2.66) | 145 | 14.94(2.97) | 66 | 15.22(2.53) | 274 | 15.11(2.80) |
| 존중 | 30대 | 18 | 15.77(2.77) | 66 | 14.62(2.82) | 55 | 14.49(2.80) | 139 | 14.71(2.82) |
| | 40대이상 | 15 | 14.60(3.06) | 77 | 15.75(2.75) | 52 | 15.75(2.55) | 144 | 15.63(2.72) |
| | 계 | 33 | 15.24(2.92) | 143 | 15.23(2.83) | 107 | 15.10(2.75) | 283 | 15.18(2.80) |
| 순수성 | 30대 | 20 | 15.45(2.54) | 64 | 14.39(3.01) | 51 | 14.86(2.63) | 135 | 14.72(2.81) |
| | 40대이상 | 25 | 15.84(2.67) | 71 | 15.63(2.68) | 46 | 15.63(2.83) | 142 | 15.66(2.71) |
| | 계 | 45 | 15.66(2.59) | 135 | 15.04(2.90) | 97 | 15.22(2.74) | 277 | 15.20(2.79) |
| 구체성 | 30대 | 46 | 14.58(3.22) | 52 | 14.53(2.50) | 39 | 15.12(2.82) | 137 | 14.72(2.84) |
| | 40대이상 | 42 | 15.59(2.66) | 66 | 15.57(2.59) | 34 | 15.82(2.92) | 142 | 15.64(2.69) |
| | 계 | 88 | 15.06(2.99) | 118 | 15.11(2.59) | 73 | 15.45(2.87) | 279 | 15.19(2.79) |
| 직면 | 30대 | 18 | 15.11(3.57) | 72 | 14.52(2.76) | 38 | 15.02(2.78) | 128 | 14.75(2.88) |
| | 40대이상 | 28 | 16.14(2.10) | 73 | 15.28(2.72) | 39 | 15.94(3.10) | 140 | 15.64(2.73) |
| | 계 | 46 | 15.73(2.78) | 145 | 14.91(2.75) | 77 | 15.49(2.96) | 268 | 15.22(2.83) |
| 자아개방 | 30대 | 32 | 15.15(3.40) | 78 | 14.41(2.51) | 27 | 15.22(2.80) | 137 | 14.74(2.81) |
| | 40대이상 | 49 | 16.12(2.31) | 67 | 15.14(2.84) | 27 | 16.00(3.01) | 143 | 15.64(2.72) |
| | 계 | 81 | 15.74(2.81) | 145 | 14.75(2.68) | 54 | 15.61(2.91) | 280 | 15.20(2.80) |
| 즉시성 | 30대 | 13 | 15.92(3.81) | 73 | 14.68(2.96) | 49 | 14.53(2.29) | 135 | 14.74(2.83) |
| | 40대이상 | 18 | 15.94(2.41) | 79 | 15.18(2.87) | 45 | 16.24(2.46) | 142 | 15.61(2.72) |
| | 계 | 31 | 15.93(3.02) | 152 | 14.94(2.91) | 94 | 15.35(2.51) | 277 | 15.19(2.80) |

<표IV-14>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반동형성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공감적이해수준 | 6.68 | 2 | 3.34 | 0.44 |
| 모의 연령 | 42.41 | 1 | 42.41 | 5.59 * |
| 모의 학력 | 12.01 | 2 | 6.00 | 0.79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10.95 | 1 | 10.95 | 1.44 |
| 아동의 성별 | 17.02 | 2 | 8.51 | 1.12 |
| 공감적이해수준 × 연령 | 46.90 | 4 | 11.72 | 1.54 |
| 공감적이해수준 × 학력 | 0.26 | 2 | 0.13 | 0.01 |
| 오차 | 1820.45 | 240 | 7.58 | |
| 전체 | 2144.26 | 273 | 7.85 | |
| 존중수준 | 0.60 | 2 | 0.30 | 0.04 ** |
| 모의 연령 | 52.24 | 1 | 52.24 | 7.10 ** |
| 모의 학력 | 16.66 | 2 | 8.33 | 1.13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10.35 | 1 | 10.35 | 1.40 |
| 아동의 성별 | 13.49 | 2 | 6.75 | 0.91 |
| 존중수준 × 연령 | 59.82 | 4 | 14.95 | 2.03 |
| 존중수준 × 학력 | 26.38 | 2 | 13.19 | 1.79 |
| 오차 | 1934.46 | 263 | 7.35 | |
| 전체 | 2216.44 | 282 | 7.86 | |

| | SS | df | MS | F |
|-------------|---------|-----|-------|---------|
| 순수성수준 | 9.94 | 2 | 4.97 | 0.65 |
| 모의 연령 | 54.46 | 1 | 54.46 | 7.21 ** |
| 모의 학력 | 12.06 | 2 | 6.03 | 0.79 |
| 아동의 성별 | 8.46 | 1 | 8.46 | 1.12 |
| 순수성수준 × 연령 | 12.42 | 2 | 6.21 | 0.82 |
| 순수성수준 × 학력 | 44.64 | 4 | 11.16 | 1.47 |
| 순수성수준 × 성별 | 4.73 | 2 | 2.36 | 0.31 |
| 오차 | 1941.03 | 257 | 7.55 | |
| 전체 | 2161.85 | 276 | 7.83 | |
| 구체성수준 | 8.17 | 2 | 4.08 | 0.54 |
| 모의 연령 | 55.70 | 1 | 55.70 | 7.44 ** |
| 모의 학력 | 11.98 | 2 | 5.99 | 0.80 |
| 아동의 성별 | 15.52 | 1 | 15.52 | 2.07 |
| 구체성수준 × 연령 | 1.52 | 2 | 0.76 | 0.10 |
| 구체성수준 × 학력 | 53.98 | 4 | 13.49 | 1.80 |
| 구체성수준 × 성별 | 28.52 | 2 | 14.26 | 1.90 |
| 오차 | 1825.20 | 244 | 7.48 | |
| 전체 | 2170.93 | 278 | 7.80 | |
| 직면수준 | 26.26 | 2 | 13.13 | 1.63 |
| 모의 연령 | 39.86 | 1 | 39.86 | 4.95 * |
| 모의 학력 | 16.23 | 2 | 8.11 | 1.00 |
| 아동의 성별 | 7.91 | 1 | 7.91 | 0.98 |
| 직면수준 × 연령 | 0.13 | 2 | 0.06 | 0.00 |
| 직면수준 × 학력 | 27.09 | 4 | 6.77 | 0.84 |
| 직면수준 × 성별 | 2.08 | 2 | 1.04 | 0.12 |
| 오차 | 1891.15 | 235 | 8.04 | |
| 전체 | 2146.01 | 267 | 8.03 | |
| 자아개방수준 | 49.79 | 2 | 24.89 | 3.34 * |
| 모의 연령 | 39.98 | 1 | 39.98 | 5.36 * |
| 모의 학력 | 13.52 | 2 | 6.76 | 0.90 |
| 아동의 성별 | 8.76 | 1 | 8.76 | 1.17 |
| 자아개방수준 × 연령 | 0.05 | 2 | 0.02 | 0.00 |
| 자아개방수준 × 학력 | 24.47 | 4 | 6.11 | 0.82 |
| 자아개방수준 × 성별 | 22.11 | 2 | 11.05 | 1.48 |
| 오차 | 1833.92 | 246 | 7.45 | |
| 전체 | 2187.39 | 279 | 7.84 | |
| 즉시성수준 | 26.18 | 2 | 13.09 | 1.69 |
| 모의 연령 | 45.79 | 1 | 45.79 | 5.91 * |
| 모의 학력 | 14.52 | 2 | 7.26 | 0.93 |
| 아동의 성별 | 9.68 | 1 | 9.68 | 1.25 |
| 즉시성수준 × 연령 | 32.95 | 2 | 16.47 | 2.13 |
| 즉시성수준 × 학력 | 41.67 | 4 | 10.42 | 1.34 |
| 즉시성수준 × 성별 | 0.63 | 2 | 0.31 | 0.04 |
| 오차 | 1880.00 | 243 | 7.73 | |
| 전체 | 2177.47 | 276 | 7.88 | |

(* : p<.05, ** : p<.01)

<표IV-13>과 <표IV-14>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반동형성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아개방 수준별로 반동형성 방어기제 사용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의사소통 변인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반동형성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이해에서 (F=5.59, P<.05) 존중에서 (F=7.10, P<.01), 순수성에서 (F=7.21, P<.01), 구체성에서(F=7.44, P<.01),직면에서 (F=4.95, P<.05), 자아개방에서 (F=5.36, P<.05), 즉시성에서 (F=5.91, P<.05)이다.

여기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촉진적 의사소통 모든 변인에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40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반동형성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8.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전치 척도의 사용 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전치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15>와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16>에 나타나 있다.

<표IV-15>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전치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남아 | 26 | 13.30(2.64) | 76 | 12.60(3.34) | 31 | 12.70(3.91) | 133 | 12.76(3.35) |
| | 여아 | 36 | 14.66(2.56) | 70 | 14.55(3.16) | 37 | 14.43(3.35) | 143 | 14.55(3.05) |
| | 계 | 62 | 14.09(2.66) | 146 | 13.54(3.39) | 68 | 13.64(3.69) | 276 | 13.69(3.31) |
| 존중 | 남아 | 12 | 13.83(2.65) | 73 | 12.53(3.19) | 52 | 12.90(3.65) | 137 | 12.78(3.33) |
| | 여아 | 20 | 13.80(2.66) | 72 | 14.97(3.10) | 57 | 14.35(3.15) | 149 | 14.57(3.08) |
| | 계 | 32 | 13.81(2.62) | 145 | 13.74(3.36) | 109 | 13.66(3.46) | 286 | 13.72(3.32) |
| 순수성 | 남아 | 20 | 12.30(3.26) | 68 | 12.88(3.32) | 48 | 12.93(3.41) | 136 | 12.81(3.32) |
| | 여아 | 26 | 14.88(2.81) | 67 | 14.79(3.17) | 51 | 13.98(3.02) | 144 | 14.52(3.07) |
| | 계 | 46 | 13.76(3.25) | 135 | 13.82(3.38) | 99 | 13.47(3.24) | 280 | 13.69(3.30) |
| 구체성 | 남아 | 42 | 12.50(3.41) | 60 | 12.80(3.43) | 34 | 13.11(3.15) | 136 | 12.78(3.34) |
| | 여아 | 47 | 14.68(3.12) | 58 | 14.44(2.96) | 40 | 14.72(3.33) | 145 | 14.60(3.10) |
| | 계 | 89 | 13.65(3.42) | 118 | 13.61(3.30) | 74 | 13.98(3.32) | 281 | 13.72(3.34) |
| 직면 | 남아 | 23 | 13.00(2.87) | 75 | 12.82(3.26) | 32 | 12.31(3.96) | 130 | 12.73(3.37) |
| | 여아 | 26 | 15.26(2.85) | 71 | 14.47(3.07) | 44 | 14.31(3.20) | 141 | 14.57(3.07) |
| | 계 | 49 | 14.20(3.05) | 146 | 13.63(3.27) | 76 | 13.47(3.65) | 271 | 13.69(3.34) |
| 자아개방 | 남아 | 40 | 13.02(2.98) | 71 | 12.47(3.54) | 25 | 13.20(3.46) | 136 | 12.77(3.36) |
| | 여아 | 42 | 15.02(3.06) | 75 | 14.26(3.01) | 30 | 14.73(3.23) | 147 | 14.57(3.07) |
| | 계 | 82 | 14.04(3.16) | 146 | 13.39(3.39) | 55 | 14.03(3.39) | 283 | 13.71(3.33) |
| 즉시성 | 남아 | 13 | 13.23(3.13) | 74 | 12.58(3.52) | 47 | 12.91(3.16) | 134 | 12.76(3.34) |
| | 여아 | 18 | 14.11(2.92) | 80 | 14.26(2.99) | 48 | 15.27(3.23) | 146 | 14.57(3.08) |
| | 계 | 31 | 13.74(2.99) | 154 | 13.45(3.35) | 95 | 14.10(3.39) | 280 | 13.70(3.33) |

<표 IV-16>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전치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공감의 정도 | 6.21 | 2 | 3.10 | 0.29 |
| 모의 학력 | 4.05 | 1 | 4.05 | 0.37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11.17 | 2 | 5.58 | 0.52 |
| 아동의 성별 | 210.80 | 1 | 210.80 | 19.71 ** |
| 공감의 정도 × 모의 학력 | 12.75 | 2 | 6.37 | 0.59 |
| 공감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43.34 | 4 | 10.83 | 1.01 |
| 공감의 정도 × 아동의 성별 | 6.70 | 2 | 3.35 | 0.31 |
| 오차 | 2587.34 | 242 | 10.69 | |
| 전체 | 3030.82 | 275 | 11.02 | |
| 중요성의 정도 | 1.11 | 2 | 0.55 | 0.05 |
| 모의 학력 | 3.71 | 1 | 3.71 | 0.35 |
| 아동의 학력 | 15.84 | 2 | 7.92 | 0.76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25.46 | 1 | 225.46 | 21.73 ** |
| 중요성의 정도 × 모의 학력 | 26.41 | 2 | 13.20 | 1.27 |
| 중요성의 정도 × 아동의 학력 | 10.23 | 4 | 2.55 | 0.24 |
| 중요성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33.44 | 2 | 16.72 | 1.61 |
| 오차 | 2759.29 | 266 | 10.37 | |
| 전체 | 3143.62 | 285 | 11.03 | |
| 수용성의 정도 | 6.69 | 2 | 3.34 | 0.31 |
| 모의 학력 | 4.03 | 1 | 4.03 | 0.38 |
| 아동의 학력 | 15.32 | 2 | 7.66 | 0.72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02.44 | 1 | 202.44 | 19.25 ** |
| 수용성의 정도 × 모의 학력 | 9.01 | 2 | 4.50 | 0.42 |
| 수용성의 정도 × 아동의 학력 | 8.45 | 4 | 2.11 | 0.20 |
| 수용성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17.02 | 2 | 8.51 | 0.81 |
| 오차 | 2733.28 | 260 | 10.51 | |
| 전체 | 3047.58 | 279 | 10.92 | |
| 구체성의 정도 | 4.89 | 2 | 2.44 | 0.24 |
| 모의 학력 | 4.70 | 1 | 4.70 | 0.46 |
| 아동의 학력 | 18.76 | 2 | 9.38 | 0.91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24.81 | 1 | 224.81 | 22.02 ** |
| 구체성의 정도 × 모의 학력 | 25.97 | 2 | 12.98 | 1.27 |
| 구체성의 정도 × 아동의 학력 | 23.79 | 4 | 5.94 | 0.58 |
| 구체성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3.23 | 2 | 1.61 | 0.15 |
| 오차 | 2511.34 | 246 | 10.20 | |
| 전체 | 3128.34 | 280 | 11.17 | |
| 직면성의 정도 | 16.25 | 2 | 8.12 | 0.77 |
| 모의 학력 | 4.32 | 1 | 4.32 | 0.41 |
| 아동의 학력 | 12.98 | 2 | 6.49 | 0.61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32.12 | 1 | 232.12 | 22.01 ** |
| 직면성의 정도 × 모의 학력 | 15.64 | 2 | 7.82 | 0.74 |
| 직면성의 정도 × 아동의 학력 | 10.27 | 4 | 2.56 | 0.24 |
| 직면성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3.32 | 2 | 1.66 | 0.15 |
| 오차 | 2509.97 | 238 | 10.54 | |
| 전체 | 3019.96 | 270 | 11.18 | |
| 자아개념의 정도 | 26.69 | 2 | 13.34 | 1.26 |
| 모의 학력 | 4.17 | 1 | 4.17 | 0.39 |
| 아동의 학력 | 18.45 | 2 | 9.22 | 0.87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25.40 | 1 | 225.40 | 21.28 ** |
| 자아개념의 정도 × 모의 학력 | 1.57 | 2 | 0.78 | 0.07 |
| 자아개념의 정도 × 아동의 학력 | 17.14 | 4 | 4.28 | 0.40 |
| 자아개념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61 | 2 | 1.30 | 0.12 |
| 오차 | 2636.64 | 249 | 10.58 | |
| 전체 | 3140.24 | 282 | 11.13 | |
| 즉시성의 정도 | 30.04 | 2 | 15.02 | 1.48 |
| 모의 학력 | 6.18 | 1 | 6.18 | 0.60 |
| 아동의 학력 | 18.59 | 2 | 9.29 | 0.91 |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229.01 | 1 | 229.01 | 22.55 ** |
| 즉시성의 정도 × 모의 학력 | 0.94 | 2 | 0.47 | 0.04 |
| 즉시성의 정도 × 아동의 학력 | 100.68 | 4 | 25.17 | 2.47 |
| 즉시성의 정도 × 아동의 의사소통수준 | 9.98 | 2 | 4.99 | 0.49 |
| 오차 | 2497.37 | 246 | 10.15 | |
| 전체 | 3101.98 | 279 | 11.11 | |

(** : p<.01)

<표IV-15>와 <표IV-16>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전치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공감적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변인에서 아동의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의사소통 변인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전치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이해에서 ($F=19.71, P<.01$), 존중에서는 ($F=21.73, P<.01$), 순성에서는 ($F=19.25, P<.01$), 구체성에서는 ($F=22.02, P<.01$) 직면에서는 ($F=22.01, P<.01$), 자아개방에서는 ($F=21.28, P<.01$), 즉시성에서는 ($F=22.55, P<.01$)이다.

여기서는 공감적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의사소통 변인에서 남자 아동들이 여자아동들 보다 전치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든 의사소통 변인에서 전치 방어기제 사용 정도가 아동의 성별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9.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합리화 척도의 사용 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합리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17>과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18>에 나타나 있다.

<표IV-17>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합리화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자아개방 | 남아 | 40 | 14.70(2.17) | 68 | 14.58(2.77) | 25 | 13.52(2.45) | 133 | 14.42(2.56) |
| | 여아 | 42 | 14.40(2.47) | 75 | 13.68(2.09) | 29 | 14.62(2.66) | 146 | 14.07(2.34) |
| | 계 | 82 | 14.54(2.32) | 143 | 14.11(2.47) | 54 | 14.11(2.60) | 279 | 14.24(2.45) |
| 즉시성 | 30대 | 14 | 13.92(1.94) | 73 | 13.78(2.80) | 49 | 14.57(2.16) | 136 | 14.08(2.52) |
| | 40대이상 | 16 | 14.31(2.82) | 80 | 14.18(2.39) | 45 | 14.95(2.02) | 141 | 14.44(2.34) |
| | 중졸 | 6 | 16.33(2.25) | 26 | 14.76(2.55) | 14 | 14.57(1.78) | 46 | 14.91(2.32) |
| | 고졸 | 20 | 13.90(2.07) | 107 | 13.77(2.69) | 64 | 14.89(2.12) | 191 | 14.16(2.50) |
| | 대졸이상 | 4 | 12.00(2.16) | 20 | 14.15(1.95) | 16 | 14.37(2.27) | 40 | 14.02(2.16) |
| | 남아 | 12 | 14.75(2.49) | 74 | 14.16(2.63) | 46 | 14.91(2.27) | 132 | 14.47(2.51) |
| | 여아 | 18 | 13.72(2.34) | 79 | 13.83(2.56) | 48 | 14.60(1.91) | 145 | 14.07(2.35) |
| 계 | 30 | 14.13(2.41) | 153 | 13.99(2.59) | 94 | 14.75(2.09) | 277 | 14.26(2.43) | |

<표IV-18>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합리화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자아개방수준 | 10.97 | 2 | 5.48 | 0.92 |
| 모의 연령 | 3.96 | 1 | 3.96 | 0.66 |
| 모의 학력 | 25.37 | 2 | 12.68 | 2.14 |
| 아동의 성별 | 7.31 | 1 | 7.31 | 1.23 |
| 자아개방수준×연령 | 2.00 | 2 | 1.00 | 0.17 |
| 자아개방수준×학력 | 30.13 | 4 | 7.53 | 1.27 |
| 자아개방수준×성별 | 46.98 | 2 | 23.49 | 3.96* |
| 오차 | 1450.27 | 245 | 5.92 | |
| 전체 | 1678.91 | 278 | 6.03 | |
| 즉시성수준 | 37.82 | 2 | 18.91 | 3.20* |
| 모의 연령 | 8.71 | 1 | 8.71 | 1.47 |
| 모의 학력 | 23.94 | 2 | 11.97 | 2.02 |
| 아동의 성별 | 9.89 | 1 | 9.89 | 1.67 |
| 즉시성수준×연령 | 2.01 | 2 | 1.00 | 0.17 |
| 즉시성수준×학력 | 46.17 | 4 | 11.54 | 1.95 |
| 즉시성수준×성별 | 2.58 | 2 | 1.29 | 0.21 |
| 오차 | 1435.78 | 243 | 5.90 | |
| 전체 | 1638.23 | 276 | 5.93 | |

(* : p<.05)

<표IV-17>과 <표IV-18>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합리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자아개방의 수준과 자녀의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아동의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96, P<.05)

남자 아동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자아개방 변인이 심화촉진적일수록 합리화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반면에, 여자 아동은 기본 촉진 수준일 때 합리화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다.

또, 즉시성의 의사소통 수준과 합리화 방어기제 사용 정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3.20, P<.05)

즉시성 변인이 촉진적, 심화 촉진적일 때가 합리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10.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승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승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IV-19>과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20>에 나타나 있다.

<표 IV-19>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승화 척도

| 구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중졸 | 11 | 14.81(3.51) | 21 | 12.76(3.80) | 13 | 15.00(3.74) | 45 | 13.91(3.79) |
| | 고졸 | 45 | 14.57(3.43) | 101 | 14.00(3.13) | 48 | 13.95(3.62) | 194 | 14.12(3.32) |
| | 대졸이상 | 7 | 12.42(3.50) | 26 | 13.38(3.08) | 7 | 18.00(5.13) | 40 | 14.02(3.95) |
| 계 | | 63 | 14.38(3.47) | 148 | 13.72(3.24) | 68 | 14.57(3.94) | 278 | 14.07(3.48) |
| 존중 | 중졸 | 5 | 14.61(4.21) | 26 | 14.60(3.69) | 18 | 13.33(4.15) | 49 | 14.14(3.88) |
| | 고졸 | 22 | 14.50(3.40) | 99 | 14.40(3.29) | 78 | 13.66(3.35) | 199 | 14.12(3.33) |
| | 대졸이상 | 6 | 12.00(2.19) | 20 | 13.15(3.01) | 14 | 16.57(4.65) | 40 | 14.17(3.94) |
| 계 | | 33 | 14.06(3.39) | 145 | 14.26(3.34) | 110 | 13.98(3.77) | 288 | 14.13(3.50) |
| 구체성 | 중졸 | 18 | 15.22(2.75) | 17 | 12.76(3.78) | 13 | 13.84(4.57) | 48 | 13.97(3.75) |
| | 고졸 | 61 | 14.22(3.40) | 83 | 13.85(3.18) | 52 | 14.59(3.51) | 196 | 14.16(3.34) |
| | 대졸이상 | 11 | 12.00(2.86) | 20 | 14.33(3.51) | 9 | 15.20(5.31) | 40 | 14.12(3.97) |
| 계 | | 90 | 14.15(3.31) | 120 | 13.92(3.37) | 74 | 14.43(3.90) | 284 | 14.13(3.49) |
| 즉시성 | 중졸 | 7 | 16.28(3.90) | 27 | 12.51(3.70) | 14 | 16.35(2.79) | 48 | 14.18(3.91) |
| | 고졸 | 21 | 13.47(4.06) | 108 | 13.97(3.30) | 65 | 14.81(3.06) | 194 | 14.20(3.33) |
| | 대졸이상 | 4 | 12.75(3.20) | 20 | 14.70(4.24) | 16 | 13.87(3.82) | 40 | 14.17(3.94) |
| 계 | | 32 | 14.00(4.02) | 155 | 13.81(3.54) | 95 | 14.88(3.21) | 282 | 14.19(3.51) |

<표 IV-20>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승화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공감적이해수준 | 43.61 | 2 | 21.80 | 1.88 |
| 모의 연령 | 0.29 | 1 | 0.29 | 0.02 |
| 모의 학력 | 2.44 | 2 | 1.22 | 0.10 |
| 아동의 성별 | 3.15 | 1 | 3.15 | 0.27 |
| 공감적이해수준 × 연령 | 6.75 | 2 | 3.37 | 0.29 |
| 공감적이해수준 × 학력 | 154.65 | 4 | 38.66 | 3.34 * |
| 공감적이해수준 × 성별 | 27.15 | 2 | 13.57 | 1.17 |
| 오차 | 2831.35 | 245 | 11.55 | |
| 전체 | 3376.26 | 278 | 12.14 | |
| 존중수준 | 5.24 | 2 | 2.62 | 0.21 |
| 모의 연령 | 0.17 | 1 | 0.17 | 0.01 |
| 모의 학력 | 0.06 | 2 | 0.03 | 0.00 |
| 아동의 성별 | 1.86 | 1 | 1.86 | 0.15 |
| 존중수준 × 연령 | 6.11 | 2 | 3.05 | 0.24 |
| 존중수준 × 학력 | 132.93 | 4 | 33.23 | 2.71 * |
| 존중수준 × 성별 | 13.37 | 2 | 6.68 | 0.54 |
| 오차 | 3283.05 | 268 | 12.25 | |
| 전체 | 3535.71 | 287 | 12.32 | |
| 구체성수준 | 11.84 | 2 | 5.92 | 0.49 |
| 모의 연령 | 0.27 | 1 | 0.27 | 0.02 |
| 모의 학력 | 1.55 | 2 | 0.77 | 0.06 |
| 아동의 성별 | 0.15 | 1 | 0.15 | 0.01 |
| 구체성수준 × 연령 | 26.41 | 2 | 13.20 | 1.09 |
| 구체성수준 × 학력 | 120.68 | 4 | 30.17 | 2.50 * |
| 구체성수준 × 성별 | 72.21 | 2 | 36.10 | 2.99 |
| 오차 | 3005.06 | 249 | 12.06 | |
| 전체 | 3458.18 | 283 | 12.22 | |
| 즉시성수준 | 68.31 | 2 | 34.15 | 2.89 |
| 모의 연령 | 0.31 | 1 | 0.31 | 0.02 |
| 모의 학력 | 0.36 | 2 | 0.18 | 0.01 |
| 아동의 성별 | 1.96 | 1 | 1.96 | 0.16 |
| 즉시성수준 × 연령 | 8.90 | 2 | 4.45 | 0.37 |
| 즉시성수준 × 학력 | 185.94 | 4 | 46.48 | 3.93 ** |
| 즉시성수준 × 성별 | 79.29 | 2 | 39.64 | 1.35 |
| 오차 | 2931.58 | 248 | 11.82 | |
| 전체 | 3472.27 | 281 | 12.35 | |

<표IV-19>와 <표IV-20>에서 보면,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승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의사소통 수준과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공감적이해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34, P<.05$)

공감적이해 변인에서 대졸 이상 어머니들이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승화 방어기제 사용 점수 18.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번째로, 존중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2.71, P<.05$)

존중 변인에서도 대졸 이상 어머니들이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16.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 구체성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2.50, P<.05$)

구체성 변인에서도 대졸 이상 어머니들이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15.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즉시성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93, P<.01$)

즉시성 변인에서는 중졸 어머니들이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승화 방어기제 사용 점수는 16.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학력 심화축진적일수록 승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대졸 이상 어머니가 비축진적일 때, 그 자녀의 승화 방어기제 사용 점수는 최저를 보이고 있다.

11.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타주의 척도의 사용 정도

축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이타주의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21>과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22>에 나타나 있다.

<표IV-2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타주의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30대 | 30 | 16.26(3.52) | 76 | 15.84(3.61) | 31 | 16.06(2.74) | 137 | 15.98(3.39) |
| | 40대이상 | 31 | 14.35(2.16) | 71 | 16.02(3.00) | 37 | 16.37(2.75) | 139 | 15.74(2.85) |
| | 중졸 | 10 | 14.90(2.37) | 21 | 15.38(2.85) | 13 | 16.69(2.95) | 44 | 15.65(2.81) |
| | 고졸 | 45 | 15.44(3.21) | 100 | 16.11(3.30) | 48 | 15.58(2.22) | 193 | 15.82(3.05) |
| | 대졸이상 | 6 | 14.83(3.06) | 26 | 15.69(3.76) | 7 | 19.85(2.85) | 39 | 16.30(3.83) |
| 계 | | 61 | 15.29(3.04) | 147 | 15.93(3.32) | 68 | 16.23(2.73) | 276 | 15.86(3.13) |

<표IV-2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타주의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공감적이해수준 | 28.98 | 2 | 14.49 | 1.50 |
| 모의 연령 | 5.55 | 1 | 5.55 | 0.57 |
| 모의 학력 | 9.82 | 2 | 4.91 | 0.51 |
| 아동의 성별 | 3.59 | 1 | 3.59 | 0.37 |
| 공감적이해수준 × 연령 | 59.06 | 2 | 29.53 | 3.06 * |
| 공감적이해수준 × 학력 | 127.25 | 4 | 31.81 | 3.30 * |
| 공감적이해수준 × 성별 | 5.33 | 2 | 2.66 | 0.27 |
| 오차 | 2331.10 | 242 | 9.63 | |
| 전체 | 2698.04 | 275 | 9.81 | |

(* : $p < .05$)

<표IV-21>와 <표IV-22>에서 보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이타주의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공감적이해 변인에서만 의사소통 수준과 연령,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공감적이해 수준과 어머니의 연령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06, P<.05$)

공감적이해 변인에서 30대 어머니들이 비촉진 수준일 때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타주의 방어기제 사용 점수는 16.26으로 가장 높고, 40대 어머니들의 자녀는 심화촉진일 때 16.37로 이타주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공감적이해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30, P<.05$)

공감적이해 변인에서 대졸 이상 어머니들이 심화촉진 수준일 때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타주의 방어기제 사용 점수는 19.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특징적인 것은 어머니가 고학력이고 심화촉진적일수록 이타주의 방어기제를 많이 쓰고, 고학력 비촉진적일수록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억제 척도의 사용 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7개 하위 변인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억제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IV-21>과 같고, 다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IV-22>에 나타나 있다.

<표IV-23>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억제 척도의 평균

| 구 분 | | 비촉진 | | 기본촉진 | | 심화촉진 | | 계 | |
|-------|------|-----|---------------|------|---------------|------|---------------|-----|---------------|
| |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N | $\bar{X}(SD)$ |
| 공감적이해 | 중졸 | 11 | 14.18(2.04) | 21 | 13.85(2.41) | 12 | 16.08(2.46) | 44 | 14.54(2.48) |
| | 고졸 | 43 | 15.30(2.59) | 99 | 15.64(3.12) | 48 | 15.16(2.52) | 190 | 15.44(2.86) |
| | 대졸이상 | 7 | 16.42(1.39) | 25 | 15.80(2.81) | 7 | 16.85(3.18) | 39 | 16.10(2.66) |
| | 남아 | 26 | 15.61(2.35) | 77 | 15.74(2.95) | 31 | 15.93(2.59) | 134 | 15.76(2.75) |
| | 여아 | 35 | 14.94(2.50) | 68 | 15.04(3.08) | 36 | 15.13(2.60) | 139 | 15.04(2.81) |
| | 계 | 61 | 15.22(2.44) | 145 | 15.41(3.02) | 67 | 15.50(2.61) | 273 | 15.39(2.80) |
| 존중 | 중졸 | 5 | 14.00(1.87) | 25 | 14.60(2.06) | 18 | 14.66(2.99) | 48 | 14.56(2.39) |
| | 고졸 | 22 | 16.04(2.38) | 96 | 15.43(2.87) | 77 | 15.44(2.98) | 195 | 15.50(2.96) |
| | 대졸이상 | 6 | 15.50(1.51) | 20 | 16.35(3.04) | 13 | 16.53(2.10) | 39 | 16.29(2.54) |
| | 계 | 33 | 15.63(2.24) | 141 | 15.41(2.79) | 108 | 15.44(2.91) | 282 | 15.45(2.77) |
| 순수성 | 중졸 | 10 | 14.20(1.54) | 19 | 14.26(2.86) | 18 | 15.05(2.33) | 47 | 14.55(2.42) |
| | 고졸 | 30 | 15.26(2.01) | 96 | 15.48(3.02) | 64 | 15.51(2.86) | 190 | 15.46(2.82) |
| | 대졸이상 | 4 | 16.25(3.40) | 19 | 16.52(2.31) | 16 | 16.00(2.73) | 39 | 16.28(2.54) |
| | 남아 | 19 | 14.78(2.14) | 68 | 15.86(2.80) | 49 | 16.12(2.70) | 136 | 15.80(2.70) |
| | 여아 | 25 | 15.36(2.05) | 66 | 15.04(3.07) | 49 | 14.89(2.67) | 140 | 15.05(2.76) |
| | 계 | 44 | 15.11(2.09) | 134 | 15.46(2.96) | 98 | 15.51(2.74) | 276 | 15.42(2.75) |
| 구체성 | 중졸 | 18 | 14.50(2.52) | 17 | 14.70(2.02) | 12 | 14.41(2.93) | 47 | 14.55(2.42) |
| | 고졸 | 59 | 15.25(3.11) | 83 | 15.61(2.73) | 51 | 15.56(2.73) | 193 | 15.49(2.84) |
| | 대졸이상 | 11 | 17.54(2.80) | 19 | 15.21(2.50) | 9 | 16.44(2.29) | 39 | 16.15(2.68) |
| | 계 | 88 | 15.38(3.06) | 119 | 15.42(2.60) | 72 | 15.48(2.74) | 279 | 15.42(2.78) |
| 직면 | 중졸 | 7 | 13.57(2.99) | 23 | 14.43(2.38) | 13 | 15.61(1.89) | 43 | 14.65(2.40) |
| | 고졸 | 37 | 15.51(3.33) | 99 | 15.41(2.90) | 51 | 15.82(2.53) | 187 | 15.54(2.89) |
| | 대졸이상 | 4 | 15.50(1.00) | 22 | 15.68(2.29) | 12 | 17.75(2.92) | 38 | 16.31(2.56) |
| | 남아 | 23 | 16.04(3.03) | 74 | 15.55(2.61) | 33 | 16.36(2.72) | 130 | 15.84(2.72) |
| | 여아 | 25 | 14.48(3.20) | 70 | 15.02(2.89) | 43 | 15.88(2.47) | 138 | 15.19(2.85) |
| | 계 | 48 | 15.22(3.19) | 144 | 15.29(2.75) | 76 | 16.09(2.57) | 268 | 15.51(2.80) |
| 자아개방 | 중졸 | 11 | 13.90(2.91) | 24 | 14.37(2.18) | 12 | 15.50(2.31) | 47 | 14.55(2.42) |
| | 고졸 | 54 | 15.44(2.83) | 103 | 15.68(2.79) | 36 | 15.08(3.21) | 193 | 15.50(2.87) |
| | 대졸이상 | 13 | 17.23(2.48) | 19 | 15.94(2.29) | 7 | 15.42(3.10) | 39 | 16.28(2.54) |
| | 계 | 78 | 15.52(2.91) | 146 | 15.50(2.67) | 55 | 15.21(2.97) | 279 | 15.45(2.79) |
| 즉시성 | 중졸 | 7 | 15.71(2.43) | 26 | 14.00(2.62) | 14 | 15.00(1.79) | 47 | 14.55(2.42) |
| | 고졸 | 20 | 14.70(3.13) | 106 | 15.40(2.79) | 64 | 15.90(2.95) | 190 | 15.50(2.89) |
| | 대졸이상 | 4 | 15.25(2.06) | 20 | 16.55(2.96) | 15 | 16.20(2.07) | 39 | 16.28(2.54) |
| | 계 | 31 | 15.00(2.82) | 152 | 15.31(2.86) | 93 | 15.81(2.69) | 276 | 15.44(2.80) |

<표 IV-24>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별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억제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 | SS | df | MS | F |
|----------|---------|-----|-------|-------|
| 부모의 억제수준 | 2.73 | 2 | 1.36 | 0.17 |
| 부모의 학력 | 0.12 | 1 | 0.12 | 0.01 |
| 아동의 학력 | 50.33 | 2 | 25.16 | 3.21* |
| 아동의 학력성별 | 33.26 | 1 | 33.26 | 4.24* |
| 아동의 학력성별 | 1.57 | 2 | 0.78 | 0.10 |
| 아동의 학력성별 | 50.60 | 4 | 12.65 | 1.61 |
| 아동의 학력성별 | 0.08 | 2 | 0.04 | 0.00 |
| 오차 | 1872.65 | 239 | 7.83 | |
| 전체 | 2133.27 | 272 | 7.84 | |
| 부모의 억제수준 | 1.54 | 2 | 0.77 | 0.10 |
| 부모의 학력 | 0.01 | 1 | 0.01 | 0.00 |
| 아동의 학력 | 63.51 | 2 | 31.75 | 4.16* |
| 아동의 학력성별 | 29.44 | 1 | 29.44 | 3.85 |
| 아동의 학력성별 | 27.61 | 2 | 13.80 | 1.80 |
| 아동의 학력성별 | 11.60 | 4 | 2.90 | 0.38 |
| 아동의 학력성별 | 1.56 | 2 | 0.78 | 0.10 |
| 오차 | 1999.25 | 262 | 7.63 | |
| 전체 | 2169.90 | 281 | 7.72 | |
| 부모의 성숙수준 | 1.83 | 2 | 0.91 | 0.12 |
| 부모의 학력 | 0.11 | 1 | 0.11 | 0.01 |
| 아동의 학력 | 61.59 | 2 | 30.80 | 4.13* |
| 아동의 학력성별 | 37.95 | 1 | 37.95 | 5.09* |
| 아동의 학력성별 | 8.47 | 2 | 4.23 | 0.56 |
| 아동의 학력성별 | 12.88 | 4 | 3.22 | 0.43 |
| 아동의 학력성별 | 24.15 | 2 | 12.07 | 1.62 |
| 오차 | 1905.70 | 256 | 7.44 | |
| 전체 | 2089.40 | 275 | 7.59 | |
| 부모의 성숙수준 | 0.90 | 2 | 0.45 | 0.05 |
| 부모의 학력 | 0.38 | 1 | 0.38 | 0.04 |
| 아동의 학력 | 54.96 | 2 | 27.48 | 3.50* |
| 아동의 학력성별 | 27.91 | 1 | 27.91 | 3.56 |
| 아동의 학력성별 | 9.89 | 2 | 4.94 | 0.63 |
| 아동의 학력성별 | 39.37 | 4 | 9.84 | 1.25 |
| 아동의 학력성별 | 4.16 | 2 | 2.08 | 0.26 |
| 오차 | 1911.63 | 244 | 7.83 | |
| 전체 | 2152.24 | 278 | 7.74 | |
| 부모의 성숙수준 | 39.86 | 2 | 19.93 | 2.50 |
| 부모의 학력 | 0.26 | 1 | 0.26 | 0.03 |
| 아동의 학력 | 55.60 | 2 | 27.80 | 3.49* |
| 아동의 학력성별 | 32.71 | 1 | 32.71 | 4.11* |
| 아동의 학력성별 | 1.26 | 2 | 0.63 | 0.08 |
| 아동의 학력성별 | 25.56 | 4 | 6.39 | 0.80 |
| 아동의 학력성별 | 5.08 | 2 | 2.54 | 0.32 |
| 오차 | 1876.29 | 236 | 7.95 | |
| 전체 | 2098.96 | 267 | 7.86 | |
| 자녀의 개방수준 | 2.05 | 2 | 1.02 | 0.13 |
| 자녀의 학력 | 0.00 | 1 | 0.00 | 0.00 |
| 아동의 학력 | 63.29 | 2 | 31.64 | 4.05* |
| 아동의 학력성별 | 29.66 | 1 | 29.66 | 3.79 |
| 아동의 학력성별 | 9.67 | 2 | 4.83 | 0.61 |
| 아동의 학력성별 | 51.60 | 4 | 12.90 | 1.65 |
| 아동의 학력성별 | 9.16 | 2 | 4.58 | 0.58 |
| 오차 | 1914.16 | 245 | 7.81 | |
| 전체 | 2173.19 | 278 | 7.81 | |
| 부모의 성숙수준 | 16.65 | 2 | 8.32 | 1.10 |
| 부모의 학력 | 0.06 | 1 | 0.06 | 0.00 |
| 아동의 학력 | 60.78 | 2 | 30.39 | 4.02* |
| 아동의 학력성별 | 28.95 | 1 | 28.95 | 3.83 |
| 아동의 학력성별 | 5.82 | 2 | 2.91 | 0.38 |
| 아동의 학력성별 | 22.26 | 4 | 5.56 | 0.73 |
| 아동의 학력성별 | 7.24 | 2 | 3.62 | 0.48 |
| 오차 | 1826.78 | 242 | 7.54 | |
| 전체 | 2164.29 | 275 | 7.87 | |

(* : p<.05)

<표IV-23>와 <표IV-24>에서 보면,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녀의 억제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는 공감적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감적이해, 순수성, 직면 변인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인별로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억제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이해에서 (F=3.21, P<.05), 존중에서 중졸 (F=4.16, P<.05), 순수성에서 (F=4.13, P<.05), 구체성에서 (F=3.50, P<.05), 직면에서 (F=3.49, P<.05), 자아개방에서 (F=4.05, P<.05), 즉시성에서 (F=4.02, P<.05)이다.

여기서는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자녀가 사용하는 억제 방어기제의 평균 점수가 높음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억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각 변인별로 아동의 성별과 억제 방어기제 사용 점수의 평균들을 검증한 결과는 공감적이해에서 (F=4.24, P<.05), 순수성에서는 (F=5.09, P<.05), 직면에서는 (F=4.11, P<.05)이다.

여기서는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보다 억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13. 축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방어기제와의 상관 관계 분석

<표IV-25> 어머니의 의사소통 변인별 수준과 자녀의 방어기제와의 상관관계

| 방어 \ 의사소통 | 공감 | 존중 | 순수성 | 구체성 | 직면 | 자아개방 | 즉시성 |
|-----------|---------|----------|--------|---------|----------|----------|---------|
| 투사 | -.0526 | .0095 | .0260 | -.0153 | -.1291 * | -.0337 | .0653 |
| 부정 | .0464 | -.0092 | .0575 | .1193 * | .0399 | .0254 | .0109 |
| 왜곡 | .0353 | .0747 | .0006 | .0623 | -.0339 | .0277 | -.0638 |
| 동일시 | .0023 | -.0276 | -.0360 | -.0018 | -.0132 | .0064 | .0657 |
| 수동공격 | -.0244 | -.0198 | -.0833 | -.0763 | -.0932 | -.0518 | .0205 |
| 행동화 | .0442 | -.0008 | .0035 | -.0097 | -.0209 | -.1089 | .0519 |
| 반동형성 | .0246 | .0061 | -.0027 | .0429 | .0196 | -.0457 | -.0769 |
| 전치 | -.0246 | -.0253 | -.0478 | .0401 | -.1118 | -.0738 | .0761 |
| 합리화 | .0763 | -.0461 | -.0533 | .0123 | -.0386 | -.1398 * | .1360 * |
| 승화 | .0195 | -.0188 | .0528 | .1466 * | .0179 | .0412 | .0498 |
| 이타주의 | .1356 * | -.1602 * | .1066 | .0098 | .0398 | -.1117 | .0237 |
| 억제 | .0464 | .0615 | .0340 | .0487 | .1194 * | -.0541 | .0188 |

(* : p<.05)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 수준과 그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정률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VI-25>와 같다.

<표VI-25>에서 보면,

공감적이해의 의사소통 수준은 이타주의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1356). 이것은 공감적이해 수준이 심화축진적일수록 이타주의 방어기제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존중의 의사소통 수준은 이타주의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1602). 이것은 존중 수준은 심화축진적이라도, 자녀는 이타주의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순수성의 의사소통 수준은 제시된 방어기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구체성의 의사소통 수준은 부정(.1193) 및 승화와(.1466)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구체성의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축진적일수록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한편 승화 방어기제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직면의 의사소통 수준은 투사와 부적 상관(-.1291), 억제와는 정적 상관(.1194)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직면의 수준이 심화축진적일수록 투사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는 한편, 억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자아개방의 의사소통 수준은 합리화와 부적 상관(-.1398)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아개방 수준이 심화축진적일수록 합리화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나타낸다.

즉시성의 의사소통 수준도 합리화와 정적 상관(.1360)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즉시성의 수준이 심화축진적일수록 합리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V. 요약 ·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들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임의 선정한 제주도내 5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00명과 그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아동과 어머니 각각 29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huff (1969)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 49 문항 중 35 문항을 사용했으며,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화방어기제검사’ 200문항 중 60문항을 선택하여 질문지를 구성 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다원변량분석을 하였고, 피어슨의 정렬상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의 수준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오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에서,

어머니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녀의 방어기제는 왜곡, 수동 공격, 반동형성, 이타주의이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왜곡 방어기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등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위의 변인 모두에서 30대 어머니들의 자녀가 40대 어머니들의 자녀보다 왜곡 방어기제 사용 평균 점수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30대 어머니들의 자녀가 왜곡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수동공격 방어기제는 구체성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여기에서도 30대 어머니 자녀들이 40대 어머니 자녀들보다 수동공격 방어기제 사용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수동공격 방어기제를 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반동형성 방어기제는 공감적 이해,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P < .05$ 수준, 존중, 순수성, 구체성 등의 변인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30대 어머니 자녀들이 40대 어머니 자녀들보다 반동형성 방어기제 평균 점수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30대 어머니들의 자녀가 반동형성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보여준다.

넷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이타주의 방어기제는 공감적 이해 수준과 연령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여기서는 30대 어머니들이 비축진적 수준일 때, 40대 어머니들은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타주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40대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축진적이어야 그 자녀는 높은 수준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2) 축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에서,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녀의 방어기제는 부정, 왜곡, 동일시, 수동공격, 승화, 이타주의, 억제 등이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부정 방어기제는 구체성 수준과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1$).

여기서는 중졸 어머니들이 비축진적 수준일 때 자녀들이 부정 방어기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고졸 어머니들은 심화축진적 수준일 때, 대졸 이상 어머니들은 기본축진적일 때 자녀들이 부정 방어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구체성 변인에서는 어머니가 저학력 비축진적일수록 그 자녀는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왜곡 방어기제는 공감,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등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공감적이해 변인에서만 중졸 어머니의 자녀들이 왜곡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등의 변인에서는 고졸 및 대졸 어머니의 자녀들이 왜곡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동일시 방어기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여기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 자녀는 동일시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넷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수동공격 방어기제는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여기서도 공감적이해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 자녀는 수동공격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승화 방어기제는 공감 수준과 학력, 존중 수준과 학력, 구체성 수준과 학력 등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즉시성과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비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자녀의 승화 방어기제 사용은 최저 점수를 나타내며, 심화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 승화 방어기제 사용 점수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고학력이고 심화촉진적일수록 승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여섯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이타주의 방어기제는 공감적이해 수준과 학력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여기서도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비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자녀의 이타주의 방어기제 사용은 최저 점수를 나타내며, 심화촉진적 의사소통을 할 때 이타주의 방어기제 사용 점수는 높아지고 있다. 이것 역시 고학력이고 심화촉

진적일수록 이타주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일곱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사용하는 억제 방어기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여기에서도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 자녀는 억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3) 촉진적 의사소통 7개 변인별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방어기제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방어기제는 투사, 행동화, 전치, 합리화, 승화, 억제 등이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투사 방어기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특히 구체성 수준과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여기서는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투사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구체성 변인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아동들은 투사 방어기제를 더 많이 쓰고, 여자 아동들은 덜 사용함을 나타내는 것이 큰 특징이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행동화 방어기제는 존중, 순수성, 구체성 등의 변인에서 $P < .05$ 수준,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수성과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공감적이해를 제외한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행동화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순수성 변인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아동들은 행동화 방어기제를 더 많이 쓰고, 여자 아동들은 덜 사용함을 나타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전치 방어기제는 공감적이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여기서도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전치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모든 변인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큰 특징이다.

넷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합리화 방어기제는 자아개방의 수준과 성별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여기서는 남자 아동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화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는데 반해서, 여자 아동은 심화촉진적일 때 더 많이 사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억제 방어기제는 공감적이해, 순수성, 직면 등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여기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억제 방어기제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4)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별 수준과 방어기제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면,

공감적이해의 의사소통 수준은 이타주의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공감적이해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이타주의 방어기제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존중의 의사소통 수준은 이타주의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존중 수준이 심화촉진적이라도, 자녀는 이타주의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순수성의 의사소통 수준은 제시된 방어기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구체성의 의사소통 수준은 부정 및 승화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구체성의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한편 승화 방어기제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직면의 의사소통 수준은 투사와 부적 상관관, 억제와는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직면의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투사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는 한편, 억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자아개방의 의사소통 수준은 합리화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아개방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합리화 방어기제를 덜 사용함을 나타낸다.

즉시성의 의사소통 수준도 합리화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즉시성의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합리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2. 결 론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자녀의 방어기제는 자아도취적 수준(왜곡), 미성숙 수준(수동공격), 신경증적 수준(반동형성), 성숙 수준(이타주의) 등으로 모든 방어기제 성숙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의사소통의 변인별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40대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하여 왜곡, 수동공격, 반동형성의 방어기제를 덜 사용하고 있다. 즉, 촉진적 의사소통 변인별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이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는 덜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방어기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 공감적 이해 변인에서 40대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적일 때만, 그 자녀들은 승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은 대부분 맏아들 또는 맏딸로서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관심의 정도가 의사소통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적응 또는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방어기제는 자아도취적 수준(부정, 왜곡), 미성숙 수준(동일시, 수동공격), 성숙 수준(승화, 이타주의, 억제)등의 성숙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신경증적 방어 수준(반동형성, 전치, 합리화)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에, 성숙 수준의 방어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의사소통의 변인별로 미성숙 수준의 방어기제인 동일시, 수동공격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덜 사용하는데 반해서, 자아도취적 수준의 왜곡 방어기제는 존중,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즉시성 등의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적일수록 그 자녀는 성숙 수준의 방어기제인 승화, 이타주의, 억제 등을 많이 사용하고, 고학력 비촉진적일수록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결국,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신경증적 방어 수준(전치, 반동형성, 합리화)

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의사소통의 모든 변인에서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방어기제는 자아도취적 수준(투사), 미성숙 수준(행동화), 신경증적 수준(전치, 합리화), 성숙 수준(승화, 억제) 등으로 모든 방어기제 성숙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의사소통 변인별로 투사, 행동화, 전치, 합리화 등의 방어기제는 남자 아동들이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여자 아동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성숙 수준의 방어기제인 승화, 억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수준과 관련지어 보면, 구체성과 순수성에서는 심화축진적일수록 남자 아동들이 투사, 행동화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결국, 여자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서는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환경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춘기와 관련하여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축진적 의사소통의 변인별 수준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분석에서 정적 관계를 보이는 변인과 방어기제는 공감적이해 수준과 이타주의, 구체성 수준과 부정 및 승화, 직면 수준과 억제 등이고,

부적 관계를 보이는 변인과 방어기제는 존중 수준과 이타주의, 직면 수준과 투사, 자아개방 수준과 합리화, 즉시성 수준과 합리화 등이다.

결국, 의사소통의 변인별 수준과 성숙 수준의 방어기제가 많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심화축진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홀로 설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 단위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부모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방어기제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 탐구가 요청된다. 특히 Carkhuff가 제안한 구체성, 직면, 자아 개방, 즉시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적합한 방어기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인성 특성 내지는 성격 특성이 결정지어지는 시기에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방어기제 사용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자녀간,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숙(1999).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권(1992). 지체장애인의 자존심과 방어기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미경(199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 표현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1978). 「발달심리학」, 서울 : 법문사.
-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태(2000). 「가족 치료 이론」, 서울 : 학지사.
- 김유숙(2000). 「가족 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인희(1993).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1). 「아화방어기제 검사 실시요강」, 서울 : 하나의학사.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분(1994). 어머니 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은미(1997).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가 방어기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영순(1984). 「교육 심리학 신강」, 서울 : 문음사.
- 박경화(1991). 한국인의 자아방어 기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수(1986). 「생활지도」, 서울 : 정민사.
가정의 청소년 지도, 한국카운슬러협회.

- 박연호(1987). 「인간관계론」, 서울 : 박영사.
- 박영숙(1998).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 : 하나의학사.
- 이상우(1983).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 배영사.
- 이연숙(1990). 가족체제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77). 「임상심리학」, 서울 : 박영사.
- 이흥규(1988). 청소년의 상태-특성불안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공주시범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립(1977). 「일반심리학」, 서울 : 박영사.
- 정명희(1987).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양은(1976). 「심리학통론」, 서울 : 범문사.
- 정혜영(1987). 10대 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승희(1995). 대학생의 자아방어 성숙도와 부모-자녀 관계 유형과의 관계, 한림대 학생생활 연구소.
- 최순영, 김수정(1995). 「인간의 사회적 성격적 발달」, 서울 : 학지사.
- 홍기선(1984).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학지사.

Adams, B. N.(1980). The Famil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Anderson, S., Douds, J., Carkhuff, R., (1967). The effects of confrontation by high and low functioning therapists. unpublished researc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alswick, J.(1978). I want to Say I Love you. Texas: Waco Inc.

Beakel, N.(1971). Parental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Psychopathology. DAI.

Brenner, C.(1981). Defence and defense mechanisms. Psychoanalytic Quarterly.

- Burke, R., Weir, T.(1977). Helping Responses of parents and peers and Adolescent Well Be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meron, N.,(1947). The Psychology of Behavior disorder: a bisocial interpretation, N. Y. H. M. CO.
- Carkhuff, R. R.(1969). Helping & Human Relations Vol I, II,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Carkhuff, R. R. & Berenson, B. G.,(1967). Beyond Counseling and Therap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Carver, C. S., & Scheier, M. F.(1988). Perspectives on personality. Allen & Bacon, Inc. : Boston.
- Collingwood, T., Renz, L., & Carkhuff, R.(1969). The Effects of client confrontation upon Levels of Immediacy offered By High Low-Functioning. Journal Psychology.
- Egan, G.(1986). The skilled helper : a model for systematic helping and interpersonal relating 3rd. ed. Monterey, California : brooks Cole Publishing Co.
- Erikson, C. W.,(1950). Psychological defenses and ego strength in the recall of completed and incompleting task, J. Abnorm. Socipsychol.
- Fiedler, F. E.(1950). A Comparison of 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analytic, Non-directive, and Adlerian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 Freeman, T.(1958). Aspects of perception in Psychoanalysis and experimental Psychology. Brit. J. Med. Psychol.
- Galvin, K. M. & Bromma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
- Glauser, M.(1979).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the homes of disturbed children" .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entral States Speech Association, St. Louis, Missouri.
- Gordon, T.(1974).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Gross, I. H., Granddall, E. W.,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5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Hann, N.(1977). Coping and defending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 Hilgard, E. R.,(1949). "Human motives and Conpect of Self" , American Psychologist.
- Ihilevich, D., & Gleser, G. C.(1986). Defence mechanisms : Their Classification, Correlates, and measurement with the defence mechanisms inventory. Owosso, MI :DMI Associations.
- Lazarus, R. S.(1979). Positive denial :The Case For not Facing reality Psychology Today, Nov.
- Noam, G. G.(1984). Self, morality and biography :Studies in dinical cal Psych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Noyes, A. P.(1968). Modern Clinical Psychiatry. , W. B. Saunders.
- Patterson, C.H.(1974). Relationshi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Picano, J. A.(1984). Ego Development and adaptation in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Reisman, J. M.(1971). Toward the integration of Psychotherap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_____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 _____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 A study of a scienc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_____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 _____ (1962).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The core of Guidance.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
- Schumm, Walter R.(1979). The Measuremant of Marital Communication

Purdue University ph. D. Thesis.

Shapiro, D. A.(1969).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in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Spieberger, J. E.,(1977).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Anziety" In J. E.
Sieber, H. F, O'Neil, Jr., S. Tobias(Ed.), Anxiety, Learning and
Instrucyion New Yo가 : John Wiley & Sons.

Stewart, J.(1976). therapeutic Communication : Medicine or Personal Contac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y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Portland Oregon, April.

Ttuax, C. Wittmer, J., & Wargo, D.(1971). Effects of The therapeutic
conditions hospitalized mantal patients during group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Ttuax, C., Carkhuff, R.(1967). Concreteness : A neglected Variable in
research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Ttuax, C. B. & Mithchell, K. M.(1971). research on Certain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Bergin, A.
E. & Gartield, S. L.(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 An empirical analysis. New York : Wiley.

Villant, G. E.(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Abstract>

The Relation of Mother's Rapport Communication to Her Child's Defensive Mechanism

Hong, Sang-Pyo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a mother's rapport(supportive) communication to her child's defensive mechanism.

The questions established for this research task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7 factors of a mother's rapport communication, does child's defensive mechanism differ by a mother's age ?

Second, for the 7 factors of a mother's rapport communication, does a child's defensive mechanism differ by a mother's school career ?

Third, for the 7 factors of a mother's rapport communication, does a child's defensive mechanism differ by a child's sex ?

Fourth, is the 7 factors of a mother's rapport communication related significantly to the scale of a child's defensive mechanism ?

For achieving this study, the 290 questionnaires are analyzed for the needed data, after the 5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both the 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SPSS/PC program analyzed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data by the statistic way of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whose mothers are in thirties use less the low stage of defensive mechanism, and use more the high stage of defensive mechanism. Possibly the mother who are in thirties has much interested in her son or daughter, which makes her communicate with her child smoothly because her child is a first son or daughter. Consequently, it makes clear that the level of communication depends on the parent's concern about the child, and furthermore this influences on the child's adjustment or maladjustment.

Second, for all factors of a mother's communication, the more a mother's school career is high and her communication is supportive, the more her child uses the defensive mechanism belonging to the mature stage such as sublimation, altruism and suppression. But for the communication factors such as regard, genuineness, concreteness, self-disclosure and immediacy, there is an exception that the more a mother's school career is high, the more her child uses the distortion defensive mechanism belonging to the narcissism stage. That is to say, a mother's school career doesn't influence on her child's defensive mechanism belonging to the neural stage such as displacement, reaction formation and rationalization. And among all factors of mother's communication, a mother's school career is a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a stage of her child's defensive mechanism.

Third, for all factors of a mother's communication, the girls use more the low stage of defensive mechanism such as projection, displacement and rationalization compared with the boys. On the contrary, the girls use less the mature stage of defensive mechanism such as sublimation and suppression compared with the boys. It may imply that the girls who are 6th grade in primary school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ir circumstances than the boys, and that the fact that the girls who have

begun to experience their puberty think a self-centered thought than the boys who haven't begun ye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actors of a mother's communication have a correlation with a child's defensive mechanism.

The correlation of emphatic understanding level with altruism, of concreteness level with denial or sublimation scale and of confrontation level with suppression scale is positively related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correlation of regard level with altruism scale, of confrontation level with projection scale, of self-disclosure level with rationalization scale and of immediacy level with rationalization scale is negatively related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more a mother's communication is supportive, the more her child uses a high stage of defensive mechanism. This demonstrates that the factors of a mother's communication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a child's defensive mechanism.

Therefore, a mother's smooth and disclosed communication is crucial to make the child adjust to his/her circumstance and to solve the problem objectively and finally to stand on own his/her feet.

설문지

「어머니의 의사소통 척도」

♣ 부탁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의 목적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설문지는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대화 양식에 비추어 보아 자녀가 아래의 각 문항과 같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반응과 가장 가까운 문항 하나만을 골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성의있게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상표 드림

♣ ()안에 ○표를 하거나 적어 주십시오.

1. 연령 : 30대(), 40대 이상()
2. 학력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 엄마! 성적표 여기 있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났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요

- ①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겠구나.
- ② 이것도 공부라고 했니? 그리고도 공부 열심히 했다구!
- ③ 속이 상한 모양이구나.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으니.
- ④ 그래도 걱정은 되나 보지? 걱정한다고 소용 있겠니?
- ⑤ 좀 더 잘하려고 애썼는데 도리어 성적이 떨어졌으니 실망이 크겠구나.

2. 날씨가 더워서 짜증만 나고 공부가 잘 안 돼요. 많이 해야 할 텐데요.

- ① 좀 덥더라도 참고 해. 넌 끈기가 부족해서 걱정이야.
- ② 더울 때에는 좀 쉬어 가면서 해야지.
- ③ 넌 땀도 많다. 공부하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나?
- ④ 넌 그래도 잘 참고 공부하는 거야.
- ⑤ 그래.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3. 엄마, 돈 좀 주세요. 돈돈 하니깐 짜증 나시죠?

- ① 자꾸 돈을 달라니깐 왜 걱정이 안 되겠니?
- ② 학생이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못써.
- ③ 넌 맨날 돈 타낼 궁리만 하고 있니?
- ④ 짜증이랄 것까지 있니? 네가 돈을 좀 헤프게 쓴단 말이지.
- ⑤ 네가 돈을 계획없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4. 선생님들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너무 구식이에요.

- ① 넌 선생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

러니?

- ② 세대차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는 거야.
- ③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어떤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니?
- ④ 학교 선생님들은 워낙 원리 원칙을 잘 찾으시지.
- ⑤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5. 지난번에 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무척 슬펐지만 웬지 피식 피식 웃음이 나오대요.

- 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척 슬펐구나.
- ② 슬픈데도 눈물이 나오기는 커녕 웃음이 나왔단 말이나?
- ③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은 슬픈데도 슬픔을 표시할 수 없었다고?
- ④ 그렇게 슬픈 일에 웃다니 어떻게 되어서 그랬을까?
- 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긴 하면서도 웬지 웃음이 나왔다고?

6. 엄마! 학생 때 연애해 본 적이 있으세요?

- ① 마음 속으로 좋아하던 사람이야 있었지만 그저 혼자 속만 태웠지.
- ② 쓸데없이 별 것 다 묻는구나.
- ③ 글썄, 연애 비슷한 거 한적 있었지.
- ④ 뭐, 특별한 경험은 없어.
- ⑤ 혼자 속으로 조금 좋아하던 사람이야 있었지.

7. 엄마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이 너무 많아요. 간섭 좀 그만 하세요.

- ① 학교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니?
- ② 내가 네 일에 간섭을 많이 하니깐 그만 참견하라는 말이나?
- ③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공부나 해.
- ④ 내가 네게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린지 좀더 이야기해 볼래?
- ⑤ 엄마가 잔소릴 많이 한다고?

- ④ 너도 연속극을 보니?
- ⑤ 요새 연속극에서 어떤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

12. 동생(형, 언니, 오빠)이 저보다 공부를 잘하면 자랑스럽기도하고 알밋기도 해요.

- ① 동생이 너보다 공부를 잘하면 알밋기는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하단 말이나?
- ② 동생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 ③ 동생이 공부를 잘 하면 자랑스럽다고?
- ④ 동생이 너보다 잘 하면 좋으면서도 알미운 생각이 든단 말이지.
- ⑤ 샘이 나면서도 자랑스럽다니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좀더 이야기 해 보렴.

13. 엄마, 아빠하고 결혼하셔서 행복하세요?

- ① 다투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니깐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지.
- ② 사람이 행복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야.
- ③ 애는 별 이상한 것 다 물어보고 있네.
- ④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난 행복하다고 봐.
- ⑤ 어떤 때는 괜히 결혼 했구나하는 후회도 들지만 나도 반성하고 아빠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니깐 그런대로 순탄하게 지내게 되더라.

14. 엄마는 집안 일보다 바깥일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 ① 엄마가 집안일에 어떻게 신경 쓰면 좋겠단 말인지 궁금하구나.
- ② 너 요새 공부 열심히 하니?
- ③ 엄마가 집안 일에 관심이 적다는 말이지?
- ④ 어른 하는 일에 애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야.
- ⑤ 엄마가 바깥일 때문에 집안 일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나?

15. 친구들과하고 바닷가로 캠핑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보내 주셔야 돼요.

- ① 가고는 싶겠지만 학생들이 무슨 캠핑이야.
- ② 친구들도 사귄 겐 꼭 가고 싶은데 안 보내 줄까 봐 걱정이 되는가 보구나.
- ③ 넌 매일 놀 궁리만 하니? 공부는 언제하려고?
- ④ 이번엔 친구들과하고 캠핑을 꼭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⑤ 머리도 식힐 겐 이번엔 꼭 가겠다는 말이구나.

16. 엄마는 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데 통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① 엄마는 네게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지.
- ② 엄마가 관심이 없다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 ③ 엄마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줬는데도 공부하느라 애를 많이 썼구나.
- ④ 그래. 엄마가 네게 신경을 못 써 줬구나.
- ⑤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니?

17.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갔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표 두장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어요.

- ① 그런 일들 때문에 네가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구나.
- ② 영화 같은 것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
- ③ 넌 못된 애들 닮아 가려고 그러니? 학생이 영화는 무슨 영화니?
- ④ 친구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 ⑤ 엄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구나.

18. 뭐니뭐니 해도 텔레비전은 스포츠 중계가 제일 재미있어요.

- ① 무슨 운동 경기가 그렇게 재미있니?

- ② 요즈음은 스포츠 중계를 보는 사람이 많지.
- ③ 어제 경기를 아주 재미있게 보던데 그 시합은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 있었니?
- ④ 요새 무슨 중계를 보았길래 그러니?
- ⑤ 우리 나라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하지.

19. 전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싫은 부탁을 해도 차마 거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 ①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까봐 들어주기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이나?
- ②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거절할 때 마음이 썩 불편한 것만은 아니로구나.
- ③ 친구들이 싫은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한다고?
- ④ 싫은 부탁도 거절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신경을 안쓴단 말이로구나.
- ⑤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한다면 아이들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그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

20. 엄마도 자랄 때 꾸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① 나도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랐어. 그땐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깐 역시 어른들 말씀이 옳은 것 같아.
- ② 난 꾸중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
- ③ 물론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지.
- ④ 사람이 어떻게 꾸중을 안 들을 수가 있겠니?
- ⑤ 엄마도 잘못된 일이 많이 있었지. 그러니 꾸중을 들을 수 밖에 더 있지?

21. 엄마는 형(언니, 오빠, 동생)과 저를 차별할 때가 많아요.

- ① 엄마가 나와 형(언니, 오빠, 동생)을 차별할 때가 많다는 말이나?
- ② 년 언제나 불평이 많아.

- ③ 너 오늘 공부할 것은 다 했니?
- ④ 엄마가 너를 달리 대한다고?
- ⑤ 글썄, 엄마가 형제 간에 어떤 차별을 했는지 이야기 좀 해보렴.

22. 엄마는 너무 하세요. 여자(남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 ①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내 입장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 ② 네가 지금 여자(남자) 친구 만날 때니?
- ③ 전화를 못 받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 ④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 ⑤ 전화를 못 받아서 화가 나고 친구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 모양이구나.

23. 저 이번 일요일날 친구들과하고 야구장에 가기로 했는데요. 괜찮겠죠? 이번 시험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 ① 네가 요새 갑갑한 모양이구나. 머리로 식힐 겸 갔다 오려무나.
- ②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운동 구경이나 다니면 뭐가 되겠니?
- ③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다음 주에 시험본다면 어째 그 모양이야?
- ④ 야구가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야구 구경도 할 수 있지만 공부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 ⑤ 갔다 오려무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서 바람도 쐬어야지.

24. 다음 주에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요.

- ① 넌 옷이 있는데 하고한 날 옷 타령이야?
- ②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넌 옷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구나.
- ③ 학생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은 거야.
- ④ 너는 옷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구나. 그러나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긴 하지.
- ⑤ 넌 옷에 너무 신경을 써서 걱정이야.

25.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것 재미 없어요.

- ① 소풍을 가서 뭇들을 하기에 그러니?
- ② 초등학교 소풍이 뭐 그렇지.
- ③ 소풍은 재미로 가는 게 아니야.
- ④ 이번에 어디로 소풍을 가기에 그러니?
- ⑤ 그래, 초등학교 소풍하고 유치원 소풍이 어떤 점이 다르니?

26. 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웬지 기분이 나빠요.

- ① 년 기분 나빠 하길 잘 하지.
- ②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니?
- ③ 년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 ④ 기분이 좋아야 할 때 거꾸로 기분이 나쁘다니 네 기분은 정말 알 수 없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지?
- ⑤ 칭찬을 받고도 기분이 나쁘다고?

27. 엄마는 다른 사람 흉 보신 적이 있으세요?

- ① 난 못된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흉을 보게 돼.
- ② 엄마라고 남 흉 안 보고 살 수 있니?
- ③ 그러면 못 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못된 사람을 보게 되면 참기가 힘들어서 흉을 보게 되지.
- ④ 난 참을성이 부족해서 잘못된 사람을 보게 되면 저절로 흉을 보게 돼.
- ⑤ 세상에 흉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28. 부모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게 의무 아니에요?

- ①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 ②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

- ③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보겠니?
- ④ 엄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이구나.
- ⑤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돼.

29.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마음 터 놓고 이야기할 만한 애가 없어요.

- ① 마음 터 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한 애가 없단 말이지?
- ② 친구하고 어울리는 재미는 없겠지만 대신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되잖아?
- ③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지?
- ④ 마음 터 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겠구나.
- ⑤ 넌 사교성이 없어서 큰 탈이야.

30. 형(누나, 동생)보다 공부를 못한다고요? 형(누나, 동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만 잘 하면 다예요?

- ①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 그러니?
- ② 넌 성품이 훌륭하지. 그래. 성적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야.
- ③ 그렇다는 이야기야. 왜 이렇게 떠드니?
- ④ 넌 성품이 좋아서 사회 생활을 잘 할 거야.
- ⑤ 성적 가지고 비교해서 기분이 나빴구나. 하긴 공부가 다는 아니지.

31. 오늘 이 옷 입는다고 했잖아요. 안 빨아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① 엄마 마음도 편치 않아. 오늘만 그냥 입고 갈 수 없겠니?
- ② 옷 하루 더 입으면 큰일 나니? 넌 맨날 옷 가지고 성화냐?
- ③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도 있지. 그 옷 하루만 더 입어.
- ④ 보면 모르니? 내가 놀면서 안 했니?
- ⑤ 네가 그러니 엄마 기분이 언짢구나. 엄마 사정도 이해해 주어야지.

32. 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 ① 엄마, 아빠의 어떤 점이 왜 싫은지 이야기 좀 해 보겠니?
- ② 애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 ③ 사람이란 불만이 있게 마련이야.
- ④ 엄마, 아빠 사는 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니?
- ⑤ 어떻게 사는 것이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사는 건지 이야기 좀 해 보렴.

33. 전 자신이 없을 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돼요.

- ① 넌 기가 죽어야 할 때 거꾸로 큰 소리를 친다니 어떻게 되어서 그럴까?
- ② 넌 원래 큰 소리를 잘 쳐.
- ③ 자신이 없을 때 큰 소리를 친다고?
- ④ 네가 큰 소리를 칠 때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구나.
- ⑤ 넌 자신이 없을 때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친다는 말이나?

34. 난 공부하기가 싫어서 죽겠어요. 엄마는 공부가 좋아서 했어요?

- ① 공부하기 싫은 때도 많았지. 어떤 때는 영 하기 싫더라.
- ② 글세…….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니?
- ③ 너처럼 싫어하지는 않았어.
- ④ 엄마라고 해서 공부가 싫을 때가 왜 없었겠니?
- ⑤ 공부를 좀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는 정말 속이 상하더라. 그럴 때는 학교도 가기 싫더라. 그러나 마음을 돌리고 다시 공부를 했지.

35. 요새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① 요새 어른들이 답답하단 말이지.
- ② 이해고 뭐고 그게 다 쓸데 없는 소리야.
- ③ 세대간의 차이란 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니?
- ④ 요새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나?
- ⑤ 네 할 일이나 잘 해.

☞ 설 문 지 ☞

「방어기제 검사」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질문지는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항 하나만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솔직하고 성의있게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모두 비밀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상표 드림

♣ ()안에 ○표 하시오.

남자(), 여자()

| 번호 | 설문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아주 그렇다 |
|----|--|-----------------|-----------|----------|-----|-----------|
| 1 | 가끔 이유없이 어떤 사람이 몹시 미워질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2 | 남의 좋은 행동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 1 | 2 | 3 | 4 | 5 |
| 3 | 손님이 제발 가주었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4 | 나는 화가 나면 운동으로 화를 풀곤 한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6 |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나는 바쁜 척 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7 | 나는 화가 나더라도 웃는 낯으로 대하려고 애쓴다. | 1 | 2 | 3 | 4 | 5 |
| 8 | 기분이 울적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랜다. | 1 | 2 | 3 | 4 | 5 |
| 9 | 모르는 것이 약이니까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 2 | 3 | 4 | 5 |
| 10 | 친구따라 강남가듯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11 |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경우가 있다. | 1 | 2 | 3 | 4 | 5 |
| 12 |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기쁨 가운데 하나이다. | 1 | 2 | 3 | 4 | 5 |
| 13 | 나와 비슷한 결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괜히 싫어진다. | 1 | 2 | 3 | 4 | 5 |
| 14 | 일이 잘 안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 1 | 2 | 3 | 4 | 5 |
| 15 | 어렸을 때 밤낮으로 끼고 다니던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었다. | 1 | 2 | 3 | 4 | 5 |
| 16 |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잊어버리려 한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7 | 만약 가족 중 누가 심한 병에 걸린다면 그 일이 현실처럼 믿기지 않을 것 같다. | 1 | 2 | 3 | 4 | 5 |
| 18 | 누가 일을 재촉하면 일부러 꾸물거릴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19 |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 1 | 2 | 3 | 4 | 5 |
| 20 | 남과 다툼 일이 있더라도 일단 기다렸다가 적당한 기회에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21 | 내가 마음 먹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거절 당할까봐 남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3 |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나서 동생에게 화풀이 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4 | 앞으로 있을 곤란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저축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5 | 내 주변에는 이유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 1 | 2 | 3 | 4 | 5 |
| 26 | 남이 하는대로 나도 덩달아 행동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27 | 물건을 일단 사고 나면 항상 잘 샀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8 | 시험에 대비하여 평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었다. | 1 | 2 | 3 | 4 | 5 |
| 29 | 나는 절대 병에 안 걸릴 것 같다. | 1 | 2 | 3 | 4 | 5 |
| 30 | 간혹 화가 나서 물건을 깨뜨리거나 부수는 경우가 있다. | 1 | 2 | 3 | 4 | 5 |
| 31 | 손이 더러운 것 같아서 자주 씻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32 | 마음이 피로울 때는 책을 읽는다. | 1 | 2 | 3 | 4 | 5 |
| 33 |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남을 탓하는 경우가 있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34 | 누가 나의 행동을 저지하면 말없이 내 고 집대로 한다. | 1 | 2 | 3 | 4 | 5 |
| 35 | 때로는 상대방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척 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36 | 당장에는 뜻을 못이루더라도 기회가 올 때 까지 기다린다. | 1 | 2 | 3 | 4 | 5 |
| 37 | 남이 내 흉을 볼 것 같아 신경 쓰일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38 | 상대방이 싫으면 그가 하는 일을 은근히 훼방 놓는다. | 1 | 2 | 3 | 4 | 5 |
| 39 | 가끔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1 | 2 | 3 | 4 | 5 |
| 40 | 내 친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41 | 내가 실수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다. | 1 | 2 | 3 | 4 | 5 |
| 42 | 나는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하면 마구 때를 쓰는 경향이 있다. | 1 | 2 | 3 | 4 | 5 |
| 43 | 내 주변에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44 | 가족 중에 누가 애를 먹일 때 나는 참고 기다린다. | 1 | 2 | 3 | 4 | 5 |
| 45 | 나를 나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 1 | 2 | 3 | 4 | 5 |
| 46 | 화가 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을 먹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47 |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 하게 행동한다. | 1 | 2 | 3 | 4 | 5 |
| 48 | 만약 미아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부모 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겠다. | 1 | 2 | 3 | 4 | 5 |
| 49 | 만약 나에게 정치를 맡겨만 준다면 사회문 제를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 1 | 2 | 3 | 4 | 5 |
| 50 | 화가 나면 일부러 누장을 부리거나 내 고 집을 내세운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51 | 상대방이 싫지만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52 | 나는 항상 참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53 | 나는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든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54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다. | 1 | 2 | 3 | 4 | 5 |
| 55 | 나는 내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56 | 마음이 복잡할 때는 친구들을 만나 떠돌고 이야기하면서 푼다. | 1 | 2 | 3 | 4 | 5 |
| 57 | 이 사회에서 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이다. | 1 | 2 | 3 | 4 | 5 |
| 58 |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해보고 싶어진다. | 1 | 2 | 3 | 4 | 5 |
| 59 | 특별한 이유없이 엘리베이터나 어두움, 동물 등이 두려울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60 |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패에게 맞고 있다면 어떻게든 돕겠다. | 1 | 2 | 3 | 4 | 5 |

< 부록3 >

본 연구에서 채택한 12가지의 방어척도의 내용

- (1) 투사(projection) :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소망, 태도, 성격 특징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소망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런 감정이나 소망을 자아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한다.
- (2) 부정(denial) :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 자체나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외부현실의 지각과정

에 영향을 미친다.

- (3) 왜곡(distortion) :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종교적 신념처럼 적응적이거나 환각·망각에서처럼 매우 부적응적이다.
- (4) 동일시(identification) : 존경하는 대상의 힘을 내면화하기 위해 그 대상의 특징, 행동, 가치관을 모방하거나 대상과의 이별 상황에서 대상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별의 현실을 방어하고,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공격적 정서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 (5) 수동-공격적 행동(passive-aggressive behavior) :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수동적 저항행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실수, 빈둥거리기, 꾸물거리기, 저항적 묵묵부답 등이 있다.
- (6) 행동화(acting out) : 이후에 나타날 부정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 욕구나 소망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 (7)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억압하고 겉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감정이나 행동을 현하는 것으로 이때 감정표현이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 있으며 부자연스럽다.
- (8) 전치(displacement) : 어떤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와 유사점이 있는 그러나 덜 중요하고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옮기는 것이다.
- (9) 합리화(rationalization) : 용납하기 어려운 자신의 태도, 신념, 또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 설명을 하려는 것이다.
- (10) 억제(suppression) : 현재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갈등이나 욕구에 대해 일단 관심을 보류하고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다.
- (11) 승화(sublimation) : 원초적이며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출한다.
- (12) 이타주의(altruism)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 충족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